독립정신

46호 2009년 7. 8월호

이 달의 독립운동가

나창헌 선생

이달의 독립운동

민족통일 의지의 화신, 조선민족혁명당

독립정신으로 사는 사람_홍일선 시인

"아름다운 자연과의 만남, 또 다른 독립정신"

특별기획

90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임시정부가 꿈꾼 나라

-임시정부가 꿈꾼 국방, 외교

(사)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시우 | 사진작가

하바로프스크 시민공원묘지

스탈린강제이주정책으로 희생된 조선인운동가들의 묘비.
그 앞에 고개숙인 당신의 얼굴에
비석에서 반사된 이름들이 깃들어 각인됩니다.
역사란 미래위에 각인된 과거의 기억입니다.

– 시로 읽는 독립정신 –

모다들 돌아와 있고나

金起林(1908~)

오래 눌렸던 소리 뭉쳐
동포와 세계에 외치노니
민족의 소리고져 등불이고져
역사의 별이고져
여기 다시 우리들 모다 돌아와 있노라.
눈부시는 월계관은 우리들 본시 바라지도 않은 것.
찬란한 자유의 새나라
첩첩한 가시덤불 저편에 아직도 머니
우리들 가시관 달게 쓰고
새벽 서릿길 즐거이 걸어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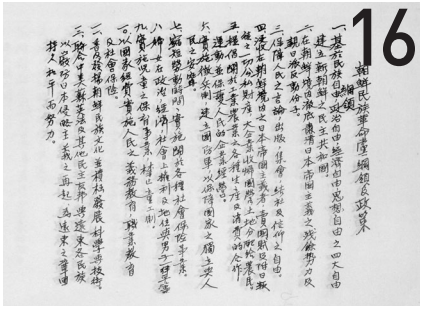
해설 : 해방 이듬해 1946년 4월에 간행한 김기림 시인의 마지막 시집인 『바다와 나비』에 실려 있는 작품으로 '눈부시는 월계관은 우리들 본시 바라지도 않은 것'이라고 토로함으로써 험난한 신생 조국의 앞날을 예감하는 시인의 말씀이 아프다. 김기림 시인은 1950년 6.25공간에서 행불과 함께 그의 작품은 남과 북 어디에서도 읽을 수 없었다.
시인의 작품은 1988년 해금되어 비루한 한국문학사에 가까스로 복귀할 수 있었다.
생전에 『기상도』 『태양의 풍속』 『바다와 나비』등 3권의 시집과 『시론』 『시의 이해』등 2권의 시론집을 남겼다.
오늘 2009년 6.10 민주항쟁 22주년 굳게 닫힌 서울광장에서 김기림 시인의 말씀을 다시 읽는 감회가 새롭다.
'나는 조선의 詩人에게는 한 개의 例外를 청하고 싶다. 우리는 반드시 한번은 過去로 다녀와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屈辱과 背信과 變節과 거짓과 訶諛에 찬 36년, 특히 최후의 수년간을 우리는 쉽사리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안타깝게 쳐다보는 民衆에게 아무 表情도 지어보일 수 없었으며 더군다나 大衆을 속이며 歷史를 속이며 가장 무서운 것은 스스로의 良心을 속여 가며 侵略者자의 福音을 노래하던 날을 너무나 값싸게 잊어서는 아니 된다.'

■ **홍일선** (시인, 대운하반대를 위한 문학예술인 공동연대 공동위원장)

2009 7*8
통권 46호

독립정신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의 회보 「독립정신」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첫 기관지 「독립」의 자주 독립정신과 민족적 정통성을 이어 받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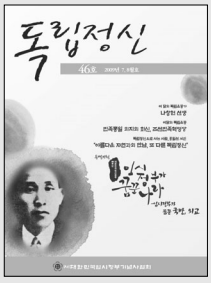
04 권두언_
제헌헌법의 진보성과 현대에서 제헌헌법이 갖는 의미
| 임지봉

06 이 달의 독립운동가_
나창헌의 삶과 독립운동 | 장석흥

12 이 달의 독립운동_
민족통일 의지의 화신, 조선민족혁명당
| 김영범

20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90주년 기획 특집_
임시정부가 꿈꾼 국방 · 외교 | 백기인
독립운동가 김종설 박사를 소개한다 | 박관우

28 다시보는 좋은 기사 1_
피끓는 청년 제군들은 잠자는가
| 이만열



발행인 | 김자동
편집인 | 김학민
편집위원 | 이두엽, 신준수, 김지용, 신명식, 이재승, 이일선, 김동완
학생편집위원 | 조영빈, 정승임, 홍용희, 인솔지, 조수정, 조정의
편집 · 디자인 | 동방기획

우 100-101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76-3 오양수산 B/D 305호
TEL : (02)3210-0411 | FAX : (02)732-2870 | E-mail : kpg1919@korea.com
홈페이지 : www.kopogo.com

31 레지스탕스 영화읽기_
〈무방비도시〉와 〈전화의 저편〉 | 이두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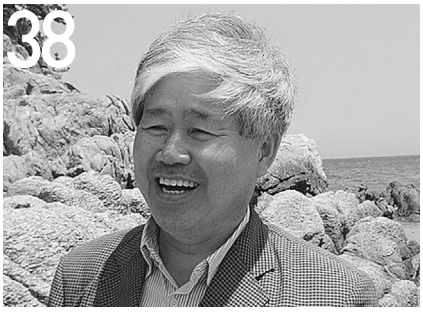
35 독립정신으로 사는 사람_ 홍일선 시인
아름다운 자연과의 만남, 또 다른 독립정신
| 인솔지 조수정 홍용희

39 다시보는 좋은 기사 2
국치 백년 기억해야 하는 이유
| 김효순

41 청년특집_타임머신을 타고 선열들과 만나다
백범 선생님 말씀해주세요 III
| 조영빈 조정의

45 독립정신 이모저모 / 만평

47 임정서가_
제대로 본 대한민국 임시정부



제헌헌법의 진보성과 현대에서 제헌헌법이 갖는 의미

임지봉
서강대 교수, 헌법학

1948년에 제정 공포된 우리 제헌헌법은 무엇보다도 우리 민족의 반만년 역사에서 최초로 혈연에 의해 세습되는 군주가 다스리는 군주국을 버리고 민주공화제를 채택한 점에서 큰 역사적 의의를 가진다. 물론 제헌헌법의 민주공화제 채택은 상해 임시정부 헌법인 1919년 4월의 대한민국임시헌장에서 기원한다. 이 대한민국임시헌장에서 국민의 신임을 얻어 조직된 대한민국이 민주공화제 국가임명 최초로 선언했다. 우리 민족의 역사가 약 5,000년이라 놓고 봤을 때 100년도 안 된 민주공화국의 역사는 우리 민족에게는 아직까지는 '최근의 일' 이라 할 수 있다.

1945년 일본천황의 미국에 대한 무조건 항복선언으로 우리가 갑작스런 광복을 맞은 후 3년은, 김구 등의 상해임시정부파, 우리 사회에서 자생해 있던 박헌영 등의 공산계열, 이승만 등의 해외파 등 여러 정치세력들이 각축을 벌이던 정치적 투쟁의 무대였다. 그 3년 후인 1948년 5월 10일에 일부정치세력들이 불참한 가운데 헌정사상 최초의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그 결과 무소속을 제외하면 이승만계와 한국민주당계가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했다. 이런 이유로 제헌헌법은 크게는 이 양대 정치세력의 정치적 타협의 산물일 수밖에 없었다.

제헌국회가 국회의 조직을 마치자마자 구성한 헌법기초위원회가 헌법제정 작업에 착수했다. 헌법기초위원회에서는 보성전문학교 헌법교수였던 유진오의 헌법초안을 원안으로 하고 일제시대 변호사 출신인 권승렬의 초안을 참고안으로 해 토의를 진

행했다. 유진오는 한 때 사회주의사상에 깊이 심취했던 인물이었다. 경제적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독일 바이마르헌법에서 깊은 감동을 받은 그의 경제적 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신념은 제헌헌법의 초안에 여러 진보적 조항들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 두 초안은 모두 정부형태를 의원내각제로, 국회 구성은 양원제로 규정한 것으로 대체적으로 한국민주당의 입장과 비슷했다. 그러나, 이것은 헌법기초위원회의 초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제기된 이승만의 대통령제와 단원제 국회안에 밀려 큰 정치적 풍랑을 맞는다. 그 후 이승만계열과 한국민주당계열의 타협에 의해 이승만의 뜻대로 대통령제, 단원제 국회가 채택되었고, 국무원제와 국무총리제는 한국민주당이 주장한 의원내각제의 요소로서 우리 헌법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제정된 우리 제헌헌법은 전문, 10장, 103조로 구성되었다. 통치구조 부분은 정치적 타협의 색채가 짙었으나 기본권과 경제질서에 관한 조항들에서는 당시로서는 상당히 진보적인 내용들이 많은 헌법이었다. 고전적 인권인 자유권 뿐만 아니라 현대 복지국가의 기본권인 사회적 기본권들도 대거 제헌헌법에 들어와 있었다. 노동3권, 생활무능력자의 보호, 가족의 건강보호 등에 관한 조항들 이외에도 특히 사기업 근로자의 이익분배균점권이 크게 눈에 띈다. 물론 근로자의 이익분배균점권은 일제시대 적산의 이익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의 문제를 두고, 자본가가 이를 독점하지 말고 근로자도 발언권과 이익을 나누어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 제헌헌법에 들어간 조항이었다. 당시 적산 처리와 관련한 시대적 고민이 투영된 조항인 것이다.

제헌헌법의 경제질서조항에도 여러 진보적 색채들이 짙게 나타난다. 정치, 경제, 교육에 있어서의 균등 실현을 목표로 하는 조소앙의 '삼균주의'가 1941년에 만들어진 상해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을 거쳐 우리 제헌헌법에도 큰 영향을 준 결과다. 그 결과 경제질서에 있어서도 순수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사회화의 경향이 짙은 경제질서를 규정했다. 즉, 통제경제 내지 계획경제를 주축으로 자연자원의 원칙적인 국유화, 공공성을 띤 기업의 원칙적인 국 · 공영제, 공공필요에 의한 사기업의 국공유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에 입각한 농지개혁이 제헌헌법에 자리를 잡았던 것이다. 이후 1954년의 제2차 개정헌법에서 이승만세력에 의해 많은 통제경제적 요소들이 제거되고 순수 자본주의 경제질서를 규정하기도 했지만, 다시 그 후부터는 현행헌법에 이르기까지 헌법개정을 통해 계속해서 경제영역에 대한 국가의 부분적 개입과 조정을 확대해 오고 있다. 우리 제헌헌법은 대한민국의 출발이 자유민주주의만을 강조하는 순수 자본주의가 아니라 부의 균등분배와 경제민주화를 지향하는 수정자본주의에 기반해 있었음을 웅변하고 있는 것이다.

나창헌의 삶과 독립운동

장석흥
국민대 교수

불꽃 투쟁의 혁명가, 나창헌

나창헌은 3 · 1운동부터 1936년 중국 사천(四川)에서 서거할 때까지 20여 년동안 국내와 중국을 무대로 활동한 열혈 독립운동가였다. 경성의학전문학교 재학 중 학생층의 3 · 1운동을 주도하며 독립운동에 투신한 이래 대한민국청년외교단과 조선민족대동단 등의 국내비밀결사를 중심으로 김가진의 상해 망명 및 의친왕 이강공의 해외망명과 '제2회독립만세운동'을 추진하였고, 1920년 초 상해로 망명한 뒤 대동단 재건에 앞장 서는 한편 철혈단을 중심으로 反임시정부 노선에 서기도 했으나, 임시정부에 참가하여 한국노병회와 국민대표회, 흥사단 등에 참가하고 임시의정원에서 이승만탄핵심판위원장으로 활약하기도 했다. 또한 임시정부 경무국장으로 임시정부 경위에 앞장 서면서 정위단, 병인의용대를 조직하여 의열투쟁을 주도하였다. 1926년 6 · 10만세운동 때에는 병인의용대 대원의 국내 의거를 추진하기도 했다. 이후 일제의 탄압을 피해 상해를 떠나 남경, 항주, 사천 등지로 거처를 옮기면서도 독립유일당촉성회에 참가하는 한편 병인의용대 재건에 힘을 쏟는 등 독립운동계에서 굵은 자취를 남겼다.

1896년 평북 희천에서 출생한 그는 진사 출신의 부친 나지홍에게 전통학문을 수학하다가, 1905년 희천

의 일신학교(日新學校)에 입학하면서 신학문을 접하였다. 1909년 평양고등학교를 거쳐 서울의 한성고등학교를 졸업하였으며, 1913년에는 경성교원양성소를 수료하였다. 경성교원양성소 졸업 후 그는 1913년 고향에 내려가 모교인 일신학교와 영변의 창의학교에서 교원을 지내다가 상급학교로의 진학을 위해 일본으로 건너갔다. 이무렵 그는 의학과 관련한 정신요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동경최면학회(東京催眠學會)와 일본정신연구회 등에 출입하였다. 1917년 국내로 돌아와 경성의학전문학교에 다니던 중 3·1을 맞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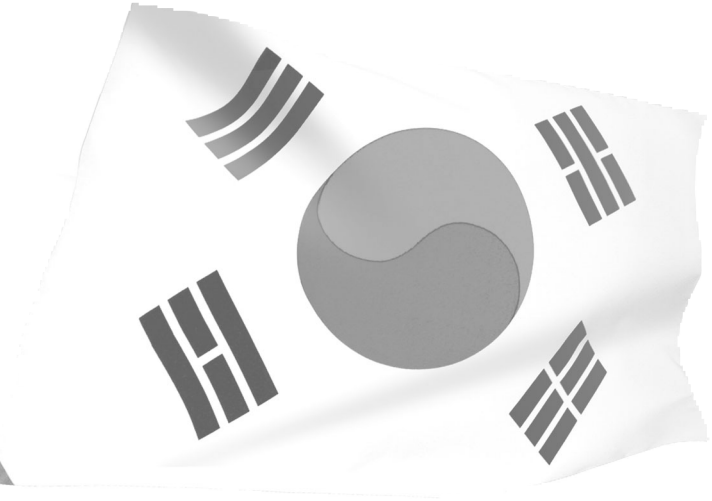
▲ 나창헌 선생

독립운동에 투신하다.

나창헌이 독립운동에 투신하는 것은 3·1운동의 추진 과정에서 학생측 대표로 참가하면서 였다. 이무렵 동경의 한국 유학생들은 민족독립에 관한 문제로 한껏 고조되어 있었다. 당시 동경에 머물던 그는 유학생 모임에 참석했고, 2월 초 귀국한 뒤 동교생 한위건, 김형기 등에게 동경 유학생의 움직임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면서 경성의학전문학교 학생단 대표로 활동하였다. 이때 학생단은 학생 중심의 만세시위를 계획하면서 학생들의 동원과 방법을 진행시켜 갔다.

당시 국내에서 3·1운동을 계획하던 중심 세력은 학생단과 종교계 세력이었다. 1910년대 일제의 가혹한 식민지 통치속에서 한국의 사회조직은 거의 파괴당하고, 종교 조직과 학교가 남아 있을 뿐이었다. 때문에 전민족적 대규모의 독립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이들 종교 조직과 학교의 연합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독립선언서의 사전 배포 특히 서울지역 학교 및 시내 배포, 3월 1일 학생 동원 등의 책임을 맡았다.

학생들은 3월 1일 독립선언식 이후 3월 5일에 제2회 만세시위를 일으켜 만세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을 계획해 갔다. 아울러 만세시위 이후에도 계속해서 독립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즉 학생단이 계획한 독립운동은 만세운동에 국한하지 않고 향후 구체적으로 독립운동에 투신할 것을 결의한 것이었다. 나창헌은 3월 1일 거사일에 이르러 탑골공원 독립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3월 5일의 2차 시위를 준비하던



중 3월 2일 운니동 하숙집에서 체포되고 말았다. 옥고를 치르던 그는 병보석으로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 중 7월 경 탈출하여 조선민족대동단 단원 정남용의 소개로 전협 · 김가진을 만나 동단에 가입했다. 그리고 의친왕 이강 공의 상해망명과 함께 제2독립만세시위계획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나창헌은 조선민족대동단뿐아니라 서울을 무대로 활동하던 대한민국청년외교단, 대한독립애국단 등과 같은 비밀결사에도 폭넓게 관계하였다. 대한민국청년외교단이 1919년 8월 29일 국치기념일을 기념하여 만세시위를 계획할 때, 그는 인쇄물의 배포 책임을 맡아 서울의 각 독립운동단체를 비롯하여 학교 및 일반에게 배포하는 한편 대한독립애국단 단장 신현구와 힘을 모아 거사를 추진해 갔다. '제2회 독립만세시위' 로 불리는 이 만세운동 계획은 당초 일제의 소위 천장절을 기해 3 · 1운동과 같은 방식으로 거행하려 한 것이었다. 이 만세시위는 대동단을 비롯하여 서울의 각 단체들과 상해에서 파견된 이종욱과 천진불변단의 인사들이 대거 특파되면서 연합시위 형태로 추진되었다. 이들은 3 · 1운동 때처럼 대한독립선언서를 작성하고 민족대표를 구성하였는데, 그는 독립선언서 집필과 함께 대동단을 대표하여 민족대표의 인선을 맡았다.

그러나 11월 17일 전협이 체포되고 대동단 조직이 파괴당하는 상황에서 나창헌 등은 만세시위를 강행하기로 결정하고, 이신애, 정규식, 박원식, 안교일, 정희종, 김종진, 변화(전협의 아내) 등과 함께 11월 28일 종로경찰서 앞에서 선언서를 살포하며 200여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시위를 거행하였다.

> 나창헌은 조선민족대동단뿐아니라 서울을 무대로 활동하던
> 대한민국청년외교단, 대한독립애국단 등과 같은 비밀결사에도 폭넓게 관계하였다.
> 대한민국청년외교단이 1919년 8월 29일 국치기념일을 기념하여 만세시위를 계획할 때,
> 그는 인쇄물의 배포 책임을 맡아 서울의 각 독립운동단체를 비롯하여
> 학교 및 일반에게 배포하는 한편 대한독립애국단 단장 신현구와 힘을 모아 거사를 추진해 갔다.

상해로 망명하다

시위 직후 일경의 체포를 피해 그는 상해로 망명하여, 재건 대동단과 철혈단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그가 상해에 도착한 것은 1920년 1월이었다. 이무렵 도산은 국내의 연통제와 교통국이 파괴당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국내활동을 위해 지방선전부 설치를 추진하던 중이었다. 임시정부의 통합과 함께 안창호는 국내외 국민들을 임시정부로 통일 집중시키는 문제를 내정활동의 기본 목표로 설정하고, 국내를 대상으로 한 선전기관으로서 지방선전부의 설치에 힘을 기울이고 있었다. 지방선전부는 기왕의 연통제를 보완하거나 대행하는 조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이를 위해 도산은 국내에서 망명한 나창헌과 수시로 만나면서 국내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국내에서 임시정부 연통본부의 설치에 힘을 쏟았던 나창헌은 안창호의 지방선전부 설치에 적극적 의지를 내보였다.

그러나 상해 생활을 통해 나창헌은 임시정부의 분파와 불통일에 대해 커다란 불만을 갖게 되었다. 국내에서 듣던 바와 달리 통합 임시정부 내 이승만과 이동휘 세력간의 극심한 분파는 열혈적 청년 나창헌에게 실망을 넘어 분노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그는 임시정부에 참가하기보다는 독자 노선에 의한 대동단 재건으로 방향을 세우고, 대동단 총재 김가진을 앞세워 대동단 본부를 1920년 3월 상해에서 재건하였다. 이때 대동단은「통고문」과「포고문」등을 발표하면서 재건의 뜻을 밝혔는데 독립전쟁을 선포한 취지는 자못 웅장한 것이었다. 이것은 국내에서의 비

> 병인의용대는 1926년 4월 8일 김광선 · 김창근, 이수봉 등 3명이 상해 일본총영사관 건물에
> 폭탄 2개를 투척하는 등 더욱 대담한 의열투쟁을 전개하였다.
> 이때 나창헌은 이들의 작전을 직접 지휘하는 한편 폭탄 제조에 가담하면서 의열투쟁의 선봉에 섰다.
> 그는 자신이 직접 제작한 시한폭탄을 중국인으로 하여금
> 일본총영사관에 반입시켜 폭파시킬 계획을 추진하던 중 동지 최병선과 장영환이
> 일본영사관에 체포되자, 동지 구출의 계획을 추진하는 한편
> 총영사관에 폭탄을 투척하는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무장노선과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었으며, 향후 나창헌의 노선을 밝히는 것이기도 했다. 그러한 의지와 포부는 상해 망명 이후 이름을 세웅(世雄)이라 바꾸고, 또 강우규(姜宇圭)라는 별칭을 즐겨 사용하였던 것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었다.

나창헌은 1926년 말 상해를 떠날때까지 6년여 동안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한국노병회와 교민단, 흥사단, 인성학교 교사 그리고 임시의정원에 참가하여 이승만탄핵심판위원장으로서 활약하는 한편 1925년 이래 임시정부 경무국장으로 정위단과 병인의용대를 이끌며 의열투쟁의 선봉에 섰다. 나창헌의 독립운동에서 이 시기는 가장 강력하고도 의열투쟁의 핵심에 섰던 기간이었다.

상해에서 세웅의원을 직접 경영하기도 했던 그는 1924년 상해교민사회에도 깊은 관심을 보이며 인성학교의 교사를 맡는 한편 교민단의사회 학무위원으로 활동하였다.

그러나 임시정부의 상황은 더욱 어려워져 갔다. 1924년 12월 임시정부는 박은식을 임시대통령대리로 선출하는 등 체제 정비에 안간힘을 썼으나, 계파간의 갈등은 더욱 골이 깊어 갔다. 이승만 탄핵의 문제는 임시정부가 넘어야 할 최대의 과제였다. 실천적 의지가 강했던 그는 임시의정원에서 1925년 3월 이승만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하고, 탄핵심판위원장의 일을 맡았다. 그리고 임시의정원은 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3월 23일 탄핵을 선포하였으며, 만장일치로 국무총리 박은식을 후임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의열투쟁에 앞장서다

나창헌은 김구의 후임으로 임시정부 내무차장 겸 경무국장의 일을 맡았다. 경무국장은 임시정부 세력을 보호하고 지키는 실무책임자로, 당시 경무국은 20여 명의 요원이 활동하고 있었다. 임시정부 경무국 요원만으로 임시정부와 한인 교포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에서 나창헌은 1925년 6월 경무국 응원단의 성격을 띠는 정위단을 조직하고 단장을 맡았다.

그리고 1926년 1월에는 정위단을 발전적으로 개편하여 병인의용대를 결성했다. 병인의용대는 일제 밀정과 친일파 처단 등 의열투쟁을 본격적으로 표방하였다. 병인의용대는 결성 후 첫 과업으로 나창헌의 지휘아래 최병선 · 장영환 · 김광신 · 박인 등 4명의 결사대가 2월 1일 상해의 일본외무성 촉탁인 조선총독부의 밀정 박제건(朴濟乾)을 상해 북강서로에서 처단하였다. 그리고 1926년 2월과 3월 사이에 염익지 등 4명의 일제 밀정을 처단하였으며, 대원 이영선(李永善)은 비록 뜻을 이루지는 못했으나 일본영사관의 관리인의 처단을 시도했다. 그런가 하면 3월 1일 기념일을 기해 국내 의거를 위해 4명의 대원을 파견하기도 했다.

병인의용대는 1926년 4월 8일 김광선 · 김창근, 이수봉 등 3명이 상해 일본총영사관 건물에 폭탄 2개를 투척하는 등 더욱 대담한 의열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때 나창헌은 이들의 작전을 직접 지휘하는 한편 폭탄 제조에 가담하면서 의열투쟁의 선봉에 섰다. 그는 자신이 직접 제작한 시한폭탄을 중국인으로 하여금 일본총영사관에 반입시켜 폭파시킬 계획을 추진하던 중 동지 최병선과 장영환이 일본영사관에 체포되자, 동지 구출의 계획을 추진하는 한편 총영사관에 폭탄을 투척하는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렇지만 일본영사관의 집요한 추적과 프랑스 조계 당국에 대한 압력으로 그는 1926년 말 결국 상해를 떠나지 않을 수 없었다. 자신이 계획하던 일본영사관 폭파 계획이 사전에 발각되면서 그의 형과 동생은 체포되고, 포위망을 간신히 탈출한 그는 항주로 이주하여, 그는 그곳에서 폐요양원을 경영하면서 독립운동의 재기를 모색하였다.

1926년 7월 이후 민족유일당운동이 확산되자, 그는 1927년 4월 상해 삼일당에서 결성한 한국유일독립당상해촉성회의 집행위원으로 참가하였다. 그러나 정치 · 사회사상과 이념을 초월하여 민족대당을 결성하려는 노력은 중국내 국공합작이 와해되는 정세 속에서 지속되기 어려웠다. 민족유일당운동이 쇠퇴하면서는 주로 흥사단을 중심으로 활동을 이어 갔다.

그는 1933년 여름 박창세 · 강창제 · 이수봉 등이 병인의용대를 재건할 때, 다시 상해를 찾아 병인의용대의 부흥에 동참하기도 했다. 이 무렵 그는 거처를 사천으로 옮겨 만현의원(萬縣醫院)을 경영하였지만, 고난의 과정에서 병을 얻어 투병하다가 1936년 6월 이국 땅에서 조국독립의 한을 가슴에 묻은채 서거하고 말았다.

※ 사진 제공 : 독립기념관

민족통일 의지의 화신, 조선민족혁명당

김영범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

1. 대혁명당 탄생하다

조선민족혁명당은 한국독립당과 함께 1940년대 대한민국임시정부 하의 대표적인 독립운동정당이었다. 1935년 7월 5일, 중국 남경의 금릉대학(金陵大學) 대례당(大禮堂)에서 창립선언 발표 및 결당식 거행과 더불어 탄생한 후, 탄탄한 조직세와 강대한 운동역량을 과시하며 해외 대일민족전선의 중간 · 좌파 중심체로 활동하였다. 원래의 명칭은 '민족혁명당'이었는데, 1937년에 관사 '조선'을 붙여 개명하였다. 한동안 임시정부와 거리를 두고 불관주의(不關主義) 입장을 취했으나, 1942년 가을부터 임시정부에 참여하여 그 인적 · 조직적 기초의 공고화와 역량 확충에 기여한 바 컸다.

조선민족혁명당(이하 '민혁당')의 창립은 1920년대 중반 이래 줄기차게 전개된 좌우합작 · 전선통일 운동의 큰 성과요 뜻깊은 결실이었다. 1926년 상해와 북경에서 민족유일당운

동이 점화되어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던 중에 1927년 국공합작의 파탄과 1928년 코민테른 '12월 테제'의 영향으로 인한 좌우 분극화 정세를 맞아 돌연 중지되어버린 듯했다. 그러나 1931년 상해에서 안창호(安昌浩)의 노력으로 독립전선통일동맹이, 다시 1932년 상해에서 한국대일전선통일동맹이 결성됨으로써 그 맥이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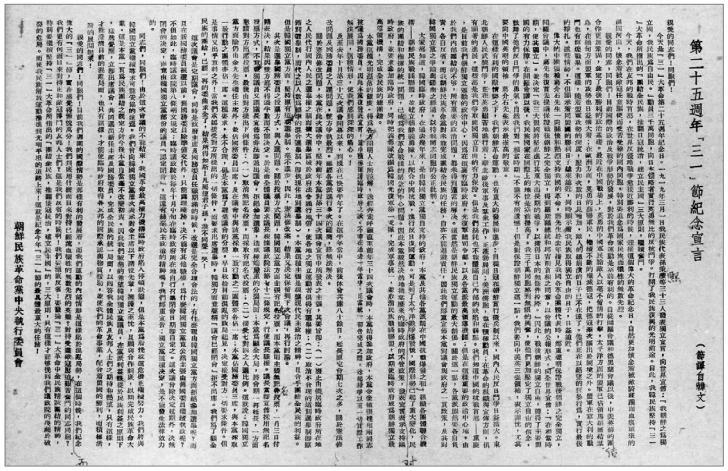
대일전선통일동맹의 가맹단체들은 1934년 들어 '대동단결체'를 조성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조직의 모습은 기설 단체들의 대통합에 의한 '단일 대당'으로 그려졌다. 그리고는 1년 여 동안 신당결성운동에 박차를 가한 결과, 5개 단체(의열단, 조선혁명당, 한국독립당, 신한독립당, 대한독립당)의 동시 해소 및 합일에 의해 대혁명당이 조성된 것이다. 5당으로부터 인계된 인적 자원은 2천 2백명 정도였고, 그 중 최초 등록 당원이 682명이었으니, 실로 거대 정당 형태의 통일전선체였다.

그러나 한국독립당의 김구(金九) · 송병조(宋秉祚) 등 일부 유력인사와 신한독립당의 청년 당원 일부는 끝내 참여를 거부하고 한국국민당을 따로 창립시켰다. 좌익단체인 의열단과 합작 · 통합할 수 없다는 것과, 창당추진세력 일부가 임시정부 해체론을 제기한 바 있음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럼에도 임시정부 국무위원 7인 중 5인이나 신당에 합류한 것은 '통일'이라는 명분이 그만큼 중시되고 큰 호소력을 가졌음을 말해준다.

2. 임시정부와의 관계 진폭

민혁당 창당세력은 만주사변 이후 일제의 중국침략 노골화와 몽고 및 남양 방면으로의 진출 시도로 인하여 머지않아 중일전쟁 · 소일전쟁 · 미일전쟁이 발발하고 말 것이라 전망하였다. 그런 전쟁 국면은 우리 독립전선 진영이 일제와의 최후 결전을 벌여 민족해방을 달성할 절호의 기회로 인식되었다. 이에 독립투쟁의 총지휘부 겸 정치적 중심조직이 확립되어 있어야 했는데, 임시정부는 권능과 위세가 너무 허약해져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그들은 보았다. 그래서 민혁당이 그 역할을 대신할 것임을 자임, 공언했다.

그런 맥락에서 제기되었던 임정해체론이 창당 전에 곧 철회된 대신, 불관주의가 민혁당의 공식 입장으로 채택되어 한동안 고수되었다. 그러나 1941년 들어 제반 상황 · 정세 변화를 두루 살핀 당 지도부가 '임정 지지'를 천명하고 '임정 참가'를 주장하며 문호개방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1942년 10월의 임시의정원 선거에서 당원 9명이 의원으로 선출되면서 임정 참여가 실현되었다. 그런 배경에서 민혁당은 1943년의 제7차 전당대회에서 임시정부를 독



第二十五週年「三一」節紀念宣言

（華譯白韓文）

朝鮮民族革命黨中央執行委員會

▲ 조선민족혁명당 3.1절 기념선언

립운동의 최고지휘부요 최고통일기구로 인정함을 공식 언명하였다.

임정 참여 이후 민혁당은 임시약헌 개정에 의한 정부 개조를 계속 주장했는데, 그 요구가 수용된 결과 1944년에 김규식(金奎植)이 부주석으로, 김원봉(金元鳳) · 장건상(張建相) · 김붕준(金朋濬) · 성주식(成周寔)이 국무위원으로, 김원봉과 최석순(崔錫淳)이 군무부장과 문화부장으로 각각 선임되었다. 유력 야당의 자리에서 이제는 연합정부 · 공동정권의 한 축을 이루게 된 것이다. 정부 각 부서 직원 중 민혁당원의 숫자도 총원의 3분의 1 수준에 달하였다. 이에 임시정부에 참여하고 있는 4단체 연합선언이 나오고 정치통일이 완성되었다. 1945년에는 민혁당이 임시정부 내 5당 통일안을 의정원에 제출하기도 했는데, 실현되지는 못하였다.

3. 이상하고 위험스런 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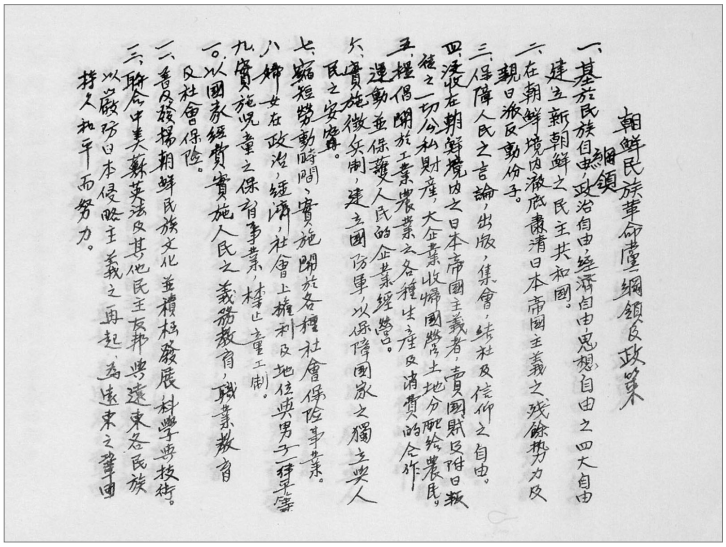
민혁당은 5당 통합체로 출범했으나, 2년 후쯤부터 의열단의 확대조직과도 같은 모습이 완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민혁당이 공산주의자(조선민족해방동맹) 및
무정부주의자들(조선혁명자연맹)과 제휴하여 조선민족전선연맹을 결성하고,
100여 명의 맹원으로 조선의용대를 창설하여 항일전선에
투입한 것은 그만이 감행할 수 있는 기획이었다.

연해졌다. 의열단 출신 당원들이 초기부터 강한 조직응집력을 보이면서 이론과 실무 양면에서 주도권을 잡아, 마침내 당내 최강의 계파를 이루게 된 때문이었다. 민주집중제를 상징하는 중앙집행위원장 직을 영입 대상인 김구 몫으로 비워둔 대신, 김원봉이 실무 총괄직인 서기장과 총서기로 연이어 보임되어 당무를 주도하면서 유일 실권자의 지위를 굳혀갔다.

이에 반발한 조소앙(趙素昻) · 홍진(洪震) · 이청천(李靑天) · 최동오(崔東旿) 등 몇몇 인사가 추종 당원들과 함께 탈당 또는 분당하여 한국독립당과 조선혁명당을 재건하고, 한국국민당과 함께 '반(反)민혁' 3자 연합을 형성하였다. 후자는 '반공'과 '임정 옹호'를 명분 삼아 민혁당에 맞섬으로써, '민혁 대 반민혁' 구도는 좌 · 우익 대립 구도로도 표상되기에 이르렀다. 그것은 민혁당이 통일전선 확대를 이유로 공산주의자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입당시킨 때문이기도 했다. 그렇게 입당한 공산주의운동 경력자나 ML주의자 청년당원들은 지도부의 운동노선과 이념노선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당내 분파조직 형성도 불사하였다. 그 여파로 김원봉의 지도자적 권위가 누차 도전받고 견제되는 결과도 빚어졌지만, 주요 현안에 대한 토론 활성화와 민주적 의사결정에 의해 가장 활력 있는 당의 모습을 구현해내기도 하였다.

김원봉은 이념적 차이에 구애됨이 없이 대동통일을 최고의 전략적 가치로 여기는 사람이었다. 그의 기본 입장은 진작 민족주의로 정향되어 있었으나, 이미 1920년대 초부터 공산주의자들과의 합작 · 협력 전술도 적극 구사해 오고 있던 터였다. 그런 관성이 민혁당 운영 및 지도노선에도 그대로 반영된 것인데, 그런 탓에 그는 종종 공산주의자로 오해되거나 위험한 용공분자로 비난받곤 하였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공산주의자들의 역량까지도 최대로 흡수하여 민족혁명에 유효하게 활용하자는 것이 그의 진정한 의도였다.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민혁당이 공산주의자(조선민족해방동맹) 및 무정부주의자들(조선혁명자연맹)과 제휴하여 조선민족전선연맹을 결성하고, 100여 명의 맹원으로 조선의용대를 창설하여 항일전선에 투


朝鮮民族革命黨綱領及政策

綱領

一、基於民族自由、政治自由、經濟自由、思想自由之四大自由建立新朝鮮之民主共和國。

二、在朝鮮境內徹底肅清日本帝國主義之殘餘勢力及親日派反動份子。

三、保障人民之言論、出版、集會、結社及信仰之自由。

四、沒收在朝鮮境內之日本帝國主義者、賣國賊及附日叛徒之一切公私財產、大企業收歸國營土地分配給農民。

五、提倡關於工業農業之各種生產及消費的合作運動並保護人民的企業經營。

六、實施徵兵制、建立國防軍、以保障國家之獨立與人民之安寧。

七、縮短勞動時間、實施關於各種社會保險事業。

八、婦女在政治、經濟、社會上權利及地位與男子一律平等。

九、實施兒童之保育事業、禁止童工制。

一〇、以國家經費實施人民之義務教育、職業教育及社會保險。

一一、善及發揚朝鮮民族文化並積極發展科學與技術。

一二、聯合中美蘇英法及其他民主友邦與遠東各民族以嚴防日本侵略主義之再起、為遠東之鞏固持久和平而努力。

▲ 조선민족혁명당 강령

입한 것은 그만이 감행할 수 있는 기획이었다.

4. 혁명당적 이념과 정체성

'민족혁명'은 1920년대 초부터 독립운동 진영에서 '제국주의 타도와 절대독립 완성'의 의미로 구사되던 용어이고, 최고의 이념적 지표이기도 했다. 독립운동자들이 항용 '혁명가'임을 자부하고 그렇게 호칭되기를 원했던 것도 바로 그런 뜻에서였다. 그런데 민혁당 간부진이나 당원들에게 있어서 '혁명'은 좀더 두터운 의미층을 내포한 것, 그러니까 민족혁명에 더하여 민주주의혁명도 포섭하는 것이었다. 2종 혁명의 유기적 결합 또는 동시적 수행에 의한 '조선혁명의 완성'이 그들의 궁극적 목표였다. '조선혁명'의 이상은 일찍이 1923년에 신채호(申采浩)가 의열단을 위하여 〈조선혁명선언〉을 집필해 주었을 때 제시되고나서, 의열단 운동과 그 인접단체들의 운동을 통해 전파되며 원대한 포부로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민혁당은 '중도좌파'적 위치에서
진보적 민족주의 운동의 구심점이 되고자 했던 한편으로,
민족해방을 우선 과제로 삼는 민족통일전선의 중심조직이 되려고도 했고,
그것의 확충 · 공고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며 실천에 주력했다.

창당시 "민족의 자주독립 완성"과 "봉건제도 및 반혁명세력 숙청과 진정한 민주공화국 건설," 그리고 "소수인이 다수인을 박삭하는 경제제도의 소멸과 민족 각개의 생활상 평등의 경제조직 건립"을 3대 '혁명원칙'으로 설정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였다. 여기에는 민족주의와 민주주의만 아니라, 사회주의 지향도 같이 내포되고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사회주의'가 교조적 차원의 계급투쟁이나 폭력혁명을 수반하는 프롤레타리아독재로 지향된 것은 결코 아니었다. 국민 참정권 및 기본적 자유권의 완전 보장, 남녀평등, 토지 국유화 단행 후 농민에게의 분급, 대생산기관 및 독점기업의 국영, 계획경제 · 통제경제 운용, 누진세제 실시, 의무교육 실시, 노동 · 농민운동의 자유 보장, 생활보호 공공기관 설치 등을 명기한 최초 당강의 여러 조항을 숙고해 보더라도 그렇다. 민혁당 창당세력이 그려보고 있던 신국가상은 부르주아민주주의도 아니지만 프롤레타리아독재도 결코 아닌, 아마도 인민민주주의 체제와 가장 근접한 것이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위와 같은 혁명원칙과 신국가상이 삼균주의를 건국원칙으로 삼고 있던 조소앙의 눈에는 모험적이고도 급진적인 것으로 비쳤던 것 같다. 탈당하면서 '신국가 건설 노선의 상위'와 '주의 상반'을 이유로 내세웠으니 말이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삼균주의는 보통선거, 대생산기관 및 토지 국유화, 의무교육 실시로 명확히 한정된 '국가 본위'의 방법론을 갖는 건설적 개혁 이념인 데 반해, 민혁당 지도부는 인민의 집합의지의 향방에 좌우되는 '숙청'과 '소멸' 등의 파괴적 방법론을 선호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다. 그것은 정돈된 국체질서가 아닌 난폭한 아나키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되었던 모양이다. 똑같이 삼균주의를 건국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던 한국국민당이나 조선혁명당도 마찬가지 생각이었을 것이다. '반민혁' 우파연합의 정서적 기반과 고리는 아마도 그렇게 조성되고 운용되었던 듯하다.

조선혁명은 어느 한 계급 또는 계급정당만으로가 아니라
여러 계급 공동으로 영도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새로 세워졌다.
또한 민혁당 자신의 계급적 기반도 노동자 · 농민 · 소자산계급에 두며,
당은 이들 계급의 '정치연맹'인 것으로 자체 성격규정하고,
계급연합의 민족통일전선 정당임을 명백히 하였다.

그러나 민혁당의 이론가들은 비과학적 관념론에 빠져 있는 '우익 특수주의'만 아니라, "민족해방운동을 계급혁명 · 계급투쟁에 예속 · 해소시키려 하는" '좌익 교조주의'도 똑같이 배격한다고 언명하였다. 민혁당의 혁명 이념이 "봉건유제의 완전 숙청과 인민자유정권의 건립"이라는 민주주의혁명 노선까지 포함하고 있던 데서 좌경색이 짙어보였을 것이지만, 몰현실의 극좌 노선은 극력 배제되고 있었다. 그리하여 민혁당은 '중도좌파'적 위치에서 진보적 민족주의 운동의 구심점이 되고자 했던 한편으로, 민족해방을 우선과제로 삼는 민족통일전선의 중심조직이 되려고도 했고, 그것의 확충 · 공고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며 실천에 주력했다.

5. 임정 참여 이후의 변화

임정 참여 이후로 민혁당의 이념노선과 정치노선은 상당한 변화를 내보였다. 거기에는 달라진 현실인식과 수정된 사회관도 한몫했다. 조선사회는 자본주의 발전의 낙후성으로 말미암아 계급분화가 미약하고, 일제의 착취와 수탈이 민족 전체의 생존을 위협하리만큼 가혹했기 때문에, 계급적 모순 · 대립이 심화될 여지가 없다고 보게 된 것이다. 그래서 조선사회는 자본가계급 및 농민 · 노동자계급의 역량보다 중간계급의 그것이 우월한 '양두소 중대(兩頭小 中大)' 사회로 재규정되었다. 그 연장선에서 노농계급 중심의 사회관을 수정하고, 소자산계급의 정치 · 사회적 위치와 비중을 격상시켜 보게 되었다. 그러기에 조선혁명은 어느 한 계급 또는 계급정당만으로가 아니라 여러 계급 공동으로 영도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새로 세워졌다. 또한 민혁당 자신의 계급적 기반도 노동자 · 농민 · 소자산계급에 두며, 당은 이들 계급의 '정치연맹'인 것으로 자체 성격규정하고, 계급연합의 민족통일전선 정당임을 명백히 하였다.

더욱 주목되는 것은, 신국가의 성격을 "사회주의국가가 아닌 민주주의국가"라고, 부연해서는 '자본주

의 민주주의국가' 라고 단언했다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영 · 미식의 부르주아국가는 아닌, "최신식의 진보적 자본주의 민주주의(국가)"라고 한정지어졌다. 사적 자본의 극단적 발전을 제한하고, 부르주아독재에 반대하며, 공 · 농 · 소자산계급의 정치 · 경제적 이익을 보호해 줄 것이기에 그렇다는 것이었다. 창당 초기의 '자주 · 민주 · 평등' 의 용어법은 이제 "민족자유, 정치자유, 경제자유, 사상자유의 4대 자유" 예찬어법으로 대치되었고, 이 4대 자유는 1945년 10월의 9차 전당대회에서도 "신조선의 민주공화국 건립의 기초"로 내세워졌다. 또한 그 유무가 한독당 강령과의 중요한 차이점이던 '봉건세력 숙청' 조항이 6차 전당대회 때 '봉건유제의 숙청' 으로 다소 연화 수정되더니 7차 전당대회 때는 아예 삭제되었음도 눈여겨 볼 점이었다.

1943년 이후 약 2년 동안에 나타난 이러한 변화의 핵심은 한마디로 말해 현실주의적 융화 노선으로의 선회였다. 그것은 전후 국제질서가 미국 중심으로 재편되리라는 정세 전망과, 통합 한독당과의 당세 비교에서 우위 역전이라는 두 가지 요인에 기인했던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조국광복의 기운이 임박함과 더불어 더욱 간절해진 민족통합의 과제에 상응하여 민혁당의 정치노선도 중도적 성향이 더욱 짙어지면서 중간파적 노선으로 귀착해 간 것이라 보아도 될 법하다.

6. 해방 후의 마지막 행로

꿈에도 그리던 해방을 성취하고 귀국한 후에도 민혁당은 임시정부를 대표하여 통일전선운동에 주력하였다. 그런데 우당(友黨)인 한독당이 한국민주당 등 우익 쪽의 임정봉대론에 고무되어 좌우합작을 포기해 버렸고, 그 바람에 통일운동은 별로 진척되지를 못하였다. 하지만 민혁당은 좌 · 우익 진영 각각의 친소반미와 친미반소 편향을 줄곧 비판하며, 중간파 세력과의 연대를 통한 좌우통일운동에 매진하였다.

그러나 그 노력은 결국 좌 · 우익 양측의 거부로 인해 수포로 돌아갔다. 이에 민혁당은 임정을 탈퇴하고, 민주주의민족전선을 유일의 통일전선체로 삼아 더 발전시킨다는 명분 하에 그 조직에 가담하였다. 중간노선을 포기하고 좌익노선을 걷게 된 셈이었다.

이로 인해 미군정과 친일파를 등에 업은 극우세력의 탄압이 우심해진 상황이던 1947년 6월에 민혁당은 인민공화당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그럼에도 계속되는 탄압을 견디지 못한 김원봉은 1948년 2월경에 38선을 넘어 북행하였다. 그 후 인민공화당 조직은 공안당국의 표적이 되고 결국 와해되어버렸다. 그것은 민혁당의 창립과 활동의 고비고비마다 깊이 각인되어 있던 민족통일의 정신과 의지가 짓밟혀 죽음과 같았다. 그리고는 이 땅에 분단체제가 덮쳐와 오래도록 통한의 세월을 연출하였다.

※ 사진 제공 : 독립기념관

—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90주년 기획 특집 —

임시정부가 꿈꾼 국방·외교

백기인
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통합 임시정부와 독립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이하 '임정')의 외교활동은 우리 민족이 일제강점기를 끝내고 독립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이른바 '독립외교'에 목표를 둔 것이었다. 초기의 상하이 임정에서 파리강화회의와 국제연맹 및 유럽에 대한 적극 외교, 그리고 미국·소련·중국을 상대로 독립외교를 전개했던 것은 그러한 맥락이었다.

그러나 민족진영 일부에서는 임정의 '외교론'에 반대하고 무력투쟁을 중심으로 한 '군사론'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1919년 9월 11일 기존의 대한민국 임정들이, 한성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상해와 노령의 정부를 개조하는 방식으로 통합정부를 구성하면서 본격화됐다.

독립운동방략의 모색과 외교활동

1920년 당시 내무총장 안창호 역시 독립운동방략을 군사·외교·교

육 · 재정 · 사법 · 통일 등으로 요약하고 군사 · 외교를 절대적인 수단이라고 역설했다. 내각에는 외교의 수장으로 외무총장을 두고, 군무총장을 두어 육 · 해군의 군정을 전문적으로 관장하도록 했다. 특히, 통합정부가 무장투쟁노선을 견지했던 이동휘 세력을 포함하여 서 · 북간도의 무장 독립군을 참여시켜 일정한 군사적 기반을 갖춤으로써 종래의 외교론 · 준비론보다 무장투쟁을 강조한 '독립혈전론' 이 힘을 얻었다. '대한민국임시헌법' 에서도 독립전쟁의 개시와 강화를 명백히 천명했고, 독립군 편성을 위한 법령정비도 구체화했다

그러나 군사론은 무장투쟁단체에서, 외교론은 대한민국 임정측의 주장으로 서로 통합되지 못한 상태였다. 1923년 1월 23일 90명의 대표가 국민대표회의에서 '독립운동의 통일과 독립운동체의 개편' 이라는 주제 하에 이를 논의했으나, '창조론' 과 '개조론' 으로 대립만 자초했을 뿐 성과가 없었다. 결국, 1920 30년대 임정 하에서 공식적인 독립운동은 군사활동보다는 해외에서의 외교활동이 주류를 이루게 됐다.

임정의 외교활동은 주로 파리평화회의와 국제연맹 및 태평양회의 등 일련의 국제회의를 통해 임정의 승인과 한국독립을 쟁취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제회의에서 한국독립문제를 묵살해버리자 열강들과 개별 접촉으로 임정을 승인받는 외교정책을 채택했다. 한국의 독립 보장이나 정부승인 문제보다 한국 독립운동의 지원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환한 것이다.

외교활동의 대상은 주로 영국 · 프랑스 · 독일 등 유럽국가 및 미국 · 소련 · 중국 등 열강이 중심을 이루었는데, 한국의 독립을 국제여론에 호소하고 임정의 승인을 얻는 것이 우선적인 목표였다. 그러나 1905년 외교권이 박탈된 한국은 열강과의 공식적 관계가 소멸됐을 뿐만 아니라 일제와 열강의 일방적 관계로 인해 주로 열강의 자국 중심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상황이었다.

영국은 1913년 이후 일본의 팽창정책으로 인해 영일동맹이 소원해졌지만 여전히 한국문제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부수적으로 다루었고, 자국민을 보호하는 선을 넘지 않았다. 그러나 제암리사건을 계기로 일본 군경의 잔악한 행위를 중지하도록 요구하며 한국 사태에 강경하게 개입했다. 특히, 친한 언론인 맥캔지(F. Mckenzie)는 – '한국의 자유를 위한 투쟁' 저술로 – 여론을 환기시켜 영국민의 정치적 인식을 자극함으로써 영 · 일관계를 약화시키고, 아시아에서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일본세력의 팽창을 저지하려면 한국과 분리돼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이를 카이로선언에 반영시켰다.

프랑스와의 관계는 더욱 다변적이었다. 일제 강점기간 동안 양국관계는 상하이에 있는 프랑스조계가 한국독립운동의 중심시가 되었다는 점에서 각별하다. 동제사 · 신한청년단과 같은 독립단체의 근거지였고, 임정의 정치활동을 프랑스 당국이 묵인해주어 가능했던 것이다. 그리고 파리평화회의에서의 임정 활동은 김규식이 파리위원부를 설치하고 다각적인 외교활동을 전개했을 뿐만 아니라 재법한국민회를 결성하여 프랑스인들이 한국독립후원회를 발족시켰다. 더욱이 프랑스정부의 공식 승인은 아니지만 망명정부로부터나 제2인터내셔날(국제사회주의자대회)로부터 임정의 승인을 얻어낸 것은 큰 성과가 아닐 수 없었다.

▲ 임정의 국군 '광복군'

미국은 1905년 이래 한국에 대한 일본의 우선권을 인정하고 불간섭주의로 일관했다. 그러다가 중일전쟁과 제2차세계대전으로 미국의 태도에 변화가 일어났다. 이에 임정은 한국독립을 위한 고무적인 전기로 인식하고 임정의 승인과 광복군 지원획득을 목표로 대미외교를 전개했다. 그러나 미국은 한반도에 관심을 기울여 온 소련과 식민지를 장악하고 있는 연합국들의 반발을 우려하여 스스로 임정 승인을 거부했고, 중국의 임정 승인도 유보하도록 했다.

한편, 소련 · 중국과의 관계는 국제적 역학관계를 배경으로 전개됐다. 공산당이 중개임무를 맡아 비밀리에 소련과 접촉하기도 했는데, 한인사회당 당수인 이동휘와 박진순 등 사회주의자들의 역할이 컸다. 파리강화회의와 태평양회의를 상대로 한 독립운동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상태에서 한때 임정의 외교방향은 대소외교에 비중이 쏠리기도 했다. 중국과는, 중국이 1930년 이전에 남경정부와 북경정부로 분리되었기 때문에 남 · 북 정부와 동시외교를 전개했다. 그러나 장제스의 북벌 완성 이후에 통일정부가 들어서자 새로운 국면을 맞았고, 1937년 중일전쟁 이후에는 공동의 적인 일본 구축을 위한 공동 항일전선을 결성했다. 당시 대소 · 중과의 외교는 군사외교가 핵심이었다.

무관학교는 곧 휴교상태에 들어갔고,
일부 무장단체와 연결도 사실상 외곽단체를 통한 간접 참여로 제한됐다.
당시 만주에는 서로군정서와 북로군정서와 같은 군사단체 등
총 22개 단체 약 2,000명의 무장군인이 있었지만,
임정 직속의 단체는 대한광복군총영이 유일한 것이었다.

임정의 군사적 노력과 '전시 참전외교'로의 전환

앞서 언급했듯이, 임정의 외교가 시종 준비론 차원에 머물지는 않았다. 1930년대 만주사변과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임정은 외교방향을 '전시참전외교'로 전환했고, 이는 군사외교의 전형이었다. 물론 참전 외교 이전의 임정이 추진한 군사적 노력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임정은 주로 외교론에 입각한 독립운동을 전개했다고 하겠지만, 그 와중에도 군무부를 만주로 이동시켜 독립군을 재편하고 독립전쟁을 수행하거나 독립운동 단체를 직 · 간접으로 도와 항일투쟁을 계속했다. 통합 임정의 노백린 초대 군무총장은 군대편성의 당위성을 지적하며 2천만 남녀가 조직적, 통일적으로 광복군이 될 것을 강조했는데, 1920년 2월 23일 열린 제7회 임시의정원에서 통과시킨 '군사에 관한 건의안'은 그러한 의지를 잘 반영한 것이었다. 그러나 조직적이고 통일적인 임정의 공식 군대인 광복군 창설까지는 근 20여년의 세월이 걸려야 했다.

우선 통합 임정은 상하이에 6개월 과정의 육군무관학교를 설립하고, 1920년 5월 8일 첫 졸업에 이어 그해 12월 말까지 43명의 장교를 배출했다. 또한 당시 약 40개의 독립군 무장단체가 있었는데, 임정은 이들에게도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러나 무관학교는 곧 휴교상태에 들어갔고, 일부 무장단체와 연결도 사실상 외곽단체를 통한 간접 참여로 제한됐다. 당시 만주에는 서로군정서와 북로군정서와 같은 군사단체 등 총 22개 단체 약 2,000명의 무장군인이 있었지만, 임정 직속의 단체는 대한광복군총영이 유일한 것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임정의 항일투쟁은 점차 의열투쟁으로 전환됐다. 의열투쟁은 인물 · 재정난을 극복하며 독립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안중근 의거를 시작으로 1920년 의혈단이나 임정의 승

중일전쟁은 임정으로 하여금 전시체제에 대한 대비와 군사활동에 적극 관심을 갖게 만들었다.
임정은 군사특파단을 설치하여 쉬안으로 파견하고
군사거점을 만들어 산서성 일대에서 공작을 전개했던 것인데,
이들의 활동을 기반으로 1940년 9월 17일 광복군총사령부가 설치된 것이다.
이로써 임정은 광복군을 통해서 중국, 영국, 미국 등 연합국과 공동의 연합작전을 수행했다.

인 하에 김구가 이끈 한인애국단으로 그 맥이 이어지고 있었다. 임정의 독립항쟁은 이봉창과 윤봉길 의거의 성공으로 큰 활력을 얻었다. 김구는 장제스를 만나 중국 중앙육군군관학교 낙양분교에 한인군관학교를 설치하여 군사간부를 양성시켰는데, 후일 그들이 광복군의 기간요원이 됐던 것이다.

임정의 독립운동이 군사노선을 중심으로 한 것은 중일전쟁과 제2차세계대전의 발발이 계기가 됐다. 특히, 중일전쟁은 임정으로 하여금 전시체제에 대한 대비와 군사활동에 적극 관심을 갖게 만들었다. 임정은 군사특파단을 설치하여 쉬안으로 파견하고 군사거점을 만들어 산서성 일대에서 공작을 전개했던 것인데, 이들의 활동을 기반으로 1940년 9월 17일 광복군총사령부가 설치된 것이다. 이로써 임정은 광복군을 통해서 중국, 영국, 미국 등 연합국과 공동의 연합작전을 수행했다.

임정의 국군인 광복군 대원

임정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광복군이 한 · 중 양군의 철혈 동맹군으로서 협력적 관계에 있다고 강조한 반면, 중국군사위원회는 시종 광복군의 걸림돌이었다. 양군 연합은 중국이 한반도에 임정을 모체로 한 친중 정권의 수립을 기대하며 정상화되기까지는 많은 제약과 불안정이 이어졌다. 그러나 영 · 미군과의 관계에서는 연합작전 수준의 군사관계가 형성됐다. 영국군의 요청에 의하여 광복군은 인도 미얀마전선에 공작대를 파견했고, 영국군에 배속된 대원들은 임팔(Impal)전선에 투입됐다. 1944년 초 그들은 최전선에서 대적방송, 적 문서번역, 전단제작, 포로신문과 같은 심리전을 실시했다. 일본군이 미얀마로 퇴각할 때에는 미얀마 탈환을 위한 총반격에도 참가했다.

적극적 연합작전과 미완의 국내진공작전

미군과의 연합작전은 더욱 주목할 만하다. 종래 국민당 일변도의 외교에서 벗어나 임정은 미국을 향해 임정의 승인과 '전시참전외교'를 적극화했기 때문이다. 양 진영은 1945년 5월 초 광복군이 임정의 군대임을 확인하는 협정을 체결하여 광복군의 지휘권을 분명히 하고, 미국의 전략첩보국(OSS)과 합작훈련을 도모했다.

전략적 이해가 맞아 떨어진 광복군과 OSS는 1945년 초부터 본격적인 합작훈련을 추진했다. 합작교섭은 광복군 제2지대와 제3지대가 주축을 이루었다. 제2지대에서 이범석이 사전트와 교섭하여 독수리작전을, 그리고 제3지대가 그해 7월부터 안휘성에서 지대장 김학규와 비치 대위 간에 합작훈련을 실시했다. 그러던 중 OSS본부(워싱턴 소재)의 굳펠로우 대령 등과 함께 한반도에서 첩보전 수행을 위한 냅코작전을 준비했다. 그러나 이 작전의 실행단계에서 일본이 항복함으로써 아쉬움으로 남았다.

그러나 광복 직전, 임정은 한미공동작전의 대원과 제2지대 대원 등 약 100명의 '국내정진군'으로 한반도 진공작전을 계획했다. 계획은 신속하게 진행돼 8월 16일 비행기가 서안을 출발했으나 산둥반도에서 일본전투기의 공격을 받아 회항하고 말았다. 결국 정진군은 8월 18일 이범석 지대장 이하 4명의 대원으로 구성된 선발대가 OSS측 미군사절단과 함께 한반도로 진공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 역시 8월 18일 여의도에 도착했지만, 일본군의 위협으로 다음날 쉬안으로 철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범석 등은 중국전구 미군과 OSS, 맥아더사령부에 작전의 지속, 임정 및 광복군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고, OSS측도 광복군과의 합작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했다. 그러나 OSS가 그해 10월 1일 해체되면서 양자 간의 공동작전에 종지부를 찍었다.

맺음말

국방과 외교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특히, 국가 위기나 비상시에 외교는 국방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고, 이에 소위 '전시참전외교'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임정의 외교활동은 시차는 있었으나, 독립운동의 일환이었고 마침내 군사외교를 중심으로 한 국방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것이었다.

비록 초기에는 임정의 국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전후 열강으로부터 한국의 독립을 보장받는 데 목적을 두었지만, 점차 '전시참전외교'로 전환하여 연합군의 일원으로 참가하면서 당당한 독립외교를 전개해갔던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임정의 노력은 결코 광복이 연합국의 승전에 의해 거져 이루어진 부산물이 아니었음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독립운동가 김종설 박사를 소개한다

— 임시정부 90주년 기념사업 수행보고 —

박관우
항일독립운동연구가

필자가 김종설 박사를 알게 된 계기는 독립운동을 하였던 재당숙의 행적을 추적하는 과정으로 부터 비롯되었다.

재작년 4월에 일제시대 비밀결사조직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느 전문가를 알게 되었으며, 그 전문가를 통하여 김박사를 처음으로 소개받았으니 생각하여 보면 참으로 감개무량한 순간이었다.

김박사는 재당숙과 경기중학교 동창생으로서 재학 중에 결성하였던 비밀결사조직인 CHT(조선인해방투쟁동맹)에서 활동한 것은 아니었으나, 그러한 정신을 이어받아서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시절에 건국동맹과 조선민족해방 협동당을 연결하여 준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구체적으로 김 박사의 주선으로 당시 여운형 선생과 김종백 선생의 회동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사실 김박사를 뵙기 전에 필자는 이러한 일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김 박사를 꾸준히 뵙게 되면서 그동안 전혀 알지 못하였던 독립운동사의 숨은 비화를 알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처음에 김박사를 뵙고 싶었던 것은 혹시나 재당숙에 관련된 새로운 사실을 아시는지 자문을 구하고자 한 것이었으나, 비록 새로운 사실은 알지 못하였지만, CHT(조선인해방투쟁동맹)의 핵심멤버인 임원빈 선생이 체포된 이후 고문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결국은 임종하였다는 증언을 듣게 되었으며, 결국은 그러한 증언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 임원빈 선생을 비롯하여 같은 멤버인 이정순 선생이 작년 3.1절에 독립유공자로 서훈받을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생각해도 참으로 감격스러운 일이었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두분의 독립운동가가 서훈되는데 있어서 김박사의 역할이 매우 컸다는 점을 이번 기회에 강조하여 말하고 싶다. 그러나 서두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김박사도 일제시대 말에 독립운동가로서 활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뵙기 전까지 독립유공자 신청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김박사의 구체적인 행적(行跡)은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재학시절, 건국동맹 청년부 조직의 실무자로 활동하였으며,1944년 7월 문우당(文友堂)에서 조선민족해방협동당 당수인 김종백 선생과 최초로 만나면서 건국동맹과 협동당이 제휴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어서 1944년 10월에 여운형 선생과 김종백 선생의 회동을 주선하였으며, 학생징집 반대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던 중 1944년 12월 전남경찰부에서 2개월간 조사를 받고, 이어서 그 다음해에 경기도 경찰부로 이송되어 조선민족해방협동당 사건으로 인하여 다시 2개월간 취조를 받은 이후에 서대문 형무소 미결감으로 이송되었다가 결국은 광복을 두달 앞두고 기소유예로 석방되었다.

사실 이 무렵은 일본이 거의 패망하기 일보 직전이었기에 정식으로 재판도 받지 않고 기소유예로 석방된 것이다. 이렇게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김 박사가 작년 8.15에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동창생이면서 동시에 함께 독립운동을 하였던 정성장 박사가 독립유공자로 서훈된 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 60년 이상 가슴에 묻어 두었던 독립유공자 신청문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는데, 영광스럽게도 필자가 그 일의 실무를 담당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동안의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작년 10월 23일 보훈처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금년 3.1절 독립유공자 서훈에서 제외가 되었다. 그런데 보훈처에서 보낸 공문에 미포상(未褒賞) 사유가 구체적 활동에 대한 입증자료가 미비하다는 점이 지적되었기에 필자가 다시 자료를 보완하여 추가로 제출하였다.

끝으로 필자는 재당숙의 경기중학교 동창생인 김종설 박사를 알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올해 87세의 원로(元老)독립운동가로서 일제시대에 항일운동을 한 김 박사의 공적(功積)이 정부에 의하여 정당하게 평가받게 되기를 충심으로 기원한다.

“피끓는 청년 제군들은 잠자는가”

이만열 | 숙명여대 명예교수

얼마전 문화재청은 올해 백범 서거 60주기를 맞아 그의 유품 19점을 근대문화재로 등록예고했다. 그 중에서 회중시계가 눈에 띄었다. 상해 의거가 있기 직전에 윤봉길 의사가 차고 있던 시계를 맞교환하여 백범 선생이 보관하던 것이다. 그 거사가 1932년 4월29일에 일어났으니까 오늘은 윤봉길 의사 상해 의거 77주년이 되는 날이다.

31년 일제는 만보산사건을 계기로 9월18일 만주침략을 감행, ‘만주사변’을 일으켰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일제의 만행을 좌시할 수 없어 ‘특무공작대’를 조직하고 국무회의 결의로 특무활동을 백범에게 모두 위임했다. 백범은 31년 11월 특무대를 조직하고 ‘한인애국단’이라 했다.

한인애국단 특무공작은 도쿄에 파견된 이봉창 의사가 32년 1월8일 사쿠라다몬(櫻田門)에서 일왕 히로히토(裕仁)에게 폭탄을 던지는 것으로 시작되었으나 실패했다. 한인애국단 활동으로는 이해 3~4월쯤에 이덕주 · 유진식이 국내에 들어가 우가키(宇垣一成) 총독 제거를 계획했으나 실패했고, 5월 하순에는 유상근 · 최흥식이 만주에 들어가 관동군사령관 등을 폭살하려 했으나 역시 실패했다.

윤봉길 의사의 의거는 곧 세계에 알려졌고 큰 영향을 미쳤다.
임시정부의 위상이 크게 높아져 그 뒤 독립운동의 중심역할이 더욱 강화된 것은 물론이고,
만보산사건 이후 악화된 중국인의 한국인에 대한 감정을 감사로 바뀌게 했으며,
중국 안의 한국 독립운동의 여건을 더욱 유리하게 만들었다.

오늘은 윤봉길의사 의거 77주년

이와 함께 윤봉길 의사의 상해 홍구(虹口)공원 의거가 있었다. 일제는 32년 1월28일 상해사변을 일으켜 상해를 무력 점령하고 이어서 4월29일 일왕의 생일경축일인 천장절에 상해 점령 경축식을 겸하여 관병식을 거행키로 했다. 이 기회를 포착하여 백범은 한인애국단원 윤봉길에게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중국을 침략하는 적을 도륙하기로 맹세한다는 선서를 받고 거사를 결행토록 했다. 거사 전날 윤봉길은 경축식에 참석하는 요인들의 사진을 구해 얼굴을 익히고 공원도 사전 답사했다. 거사 당일 윤봉길은 폭탄 2개를 갖고 가서 그 중 수통형 폭탄을 단상에 던져, 상해 파견 일본군총사령관 시라카와 요시노리(白川義則) 등 요인들에게 중상을 입혔고, 그 중 몇 사람은 곧 사망했다.

윤봉길 의사의 의거는 곧 세계에 알려졌고 큰 영향을 미쳤다. 임시정부의 위상이 크게 높아져 그 뒤 독립운동의 중심역할이 더욱 강화된 것은 물론이고, 만보산사건 이후 악화된 중국인의 한국인에 대한 감정을 감사로 바뀌게 했으며, 중국 안의 한국 독립운동의 여건을 더욱 유리하게 만들었다. 장개석은 중국군 30만명이 하지 못한 일을 한국 청년 한 사람이 해냈다고 높이 평가하면서 중국군 사관학교 안에 한인장교훈련반을 설치토록 하고 한국의 독립운동을 적극 지원했다. 이 사건은 또한 일본군의 중국 침략 확전을 단념토록 하는 효과도 거두어 중국 측과 정전협정이 이뤄졌다.

오늘 이 글을 쓰는 것은 윤봉길 의사의 의거일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런 날, 역사의식을 환기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뜻에서다.

일본 정부는 올해도 중학교 교과서 검정에서 한국사를 왜곡한 극우파의 후소샤(扶桑社)판과 지유샤(自由社)판을 승인했다. 이들 역사교과서가 한국사를 왜곡하고 있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 윤봉길의사와 루쉰공원의 윤봉길의사의거현장

더 한심한 것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도 식민지근대화론이 대놓고 활개치는가 하면, '건국 60주년' 에서 보여진 것처럼 임시정부와 독립운동을 폄훼하는 일이 공공연해졌다는 것이다. 이들 아류에 의하면 독립운동을 위해 헌신한 백범과 윤봉길은 공공연히 테러리스트로 간주된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윤봉길이 거사에 앞서 조국의 청년들에게 독립운동을 당부하면서 썼다는 "피 끓는 청년 제군들은 잠자는가" 하는 유서가 귀에 쟁쟁하다.

거사직전 남긴 유서 귀에 쟁쟁

백범은 광복 후 이봉창, 윤봉길 의거일과 안중근 의사의 서거일(3월26일)에는 울적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붓글씨를 자주 썼다. 그런 날에는 "영예와 치욕에 놀라지 아니하고 한가로이 뜰앞에 피고 지는 꽃을 본다…나방이는 오로지 밤 촛불에 뛰어드는구나.…올빼미는 오직 썩은 쥐를 즐겨 먹는다. 세상에 나방이와 올빼미 같지 않은 자 몇이나 되는가."(寵辱不驚)라는 글을 남겼다. 이 글을 통해 말하려 한 것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의사들의 죽음은 분단된 조국에서 역사의식 없는 나방이와 올빼미 같은 자들을 위해 희생된 것이 아니다' 라는 강한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 이 기사는 경향신문 4월 28일자에 실린 내용입니다.

영화

〈무방비도시〉와 〈전화의 저편〉,

이탈리아의 해방과 영화의 재생

이두희 | 자유기고가

1943년 7월 연합군은 이탈리아의 시칠리 섬에 상륙한다. 그로부터 2개월 안에 무솔리니는 축출되었고 이탈리아는 항복을 선언했다. 독일은 저항을 포기한 무방비도시(open city) 로마를 점령하게 된다.

로베르토 로셀리니 감독의 영화 〈무방비도시〉(1945)는 2차 대전 당시 독일군에게 점령당한 로마를 배경으로 한 며칠간의 이야기이다. 독일군에게 쫓기는 사회주의 레지스탕스 지도자는 시민들과 가톨릭 사제의 도움으로 몸을 숨긴 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동료의 결혼식 날 아침 그들은 체포되고 그 와중에 동료의 신부는 독일군의 총에 맞아 죽는다. 잠시 탈출에도 성공하지만 결국

▲ 무방비도시

전화의 저편 ▶

자신의 애인의 밀고로 다시 잡힌 레지스탕스와 사제는 독일군의 고문과 회유에 저항하며 끝내 죽음을 맞는다. 그들의 최후를 지켜본 거리의 아이들은 다시 그들의 도시를 향해 발걸음을 돌린다.

〈무방비도시〉는 새로운 형식과 내용으로 네오리얼리즘이라는 전후 영화사조의 첫 번째 영화로 꼽힌다. 이탈리아에서 시작해 새로운 세대의 영화감독들에게 큰 영향을 준 네오리얼리즘은 흔히 가공되지 않는 현실의 고발과 사회참여를 강조하는 영화 사조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한편의 영화의 특징들을 그러한 사조의 정의와 함께 일별하는 것은 항상 그럴듯하지도 않고 그 이해에 꼭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이 영화가 전후의 영화운동으로써 네오리얼리즘이 결코 무관하지는 않겠지만, 로셀리니 자신의 이후 영화들은 오히려 그 도덕적 태도에 대해서 네오리얼리즘 작가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이 영화 안에서는 투항한 도시의 불확실한 미래에 현실을 맡긴 사람들을 보게 된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해방은 아직도 멀리에 있었다. 영화의 한 장면, 미군이 오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인물은 대답 대신 폭격으로 무너진 폐허를 잠시 응시할 뿐이다. 그들 스스로가 파시스트 국가의 국민이었던 이탈리아의 민중들에게 해방이란 과거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것만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마치 긴 터널과 같은 현실이 때로는 우리의 정신을 더욱 고양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로셀리니 감독은 그 이듬해 〈전화의 저편〉(1946)을 통해서 전쟁을 경험한 이탈리아에 대한 좀 더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이 영화 안에서는 투항한 도시의 불확실한 미래에 현실을 맡긴 사람들을 보게 된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해방은 아직도 멀리에 있었다.
영화의 한 장면, 미군이 오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인물은 대답 대신 폭격으로 무너진 폐허를 잠시 응시할 뿐이다.
그들 스스로가 파시스트 국가의 국민이었던 이탈리아의 민중들에게
해방이란 과거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것만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마치 긴 터널과 같은 현실이
때로는 우리의 정신을 더욱 고양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전화의 저편〉은 모두 여섯 개의 짧은 에피소드들로 이루어진 영화로서 연합군의 상륙에서 독일과의 최전선까지 이탈리아를 거꾸로 종단하는 순서를 따른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해안에 상륙한 한 미군 병사와 이탈리아 소녀는 어색하면서도 순수한 그러나 짧고 비극적인 만남을 가진다. 두 번째 이야기는 잃어버린 군화를 찾기 위해 빈민가로 들어간 한 헌병이 그곳의 비참한 현실을 보고는 서둘러 도망치는 내용이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해방군을 환영했던 로마의 한 소녀가 반년 후 그들에게 몸을 파는 처지가 되는 결말을 가진다. 그리고 영화는 레지스탕스 애인을 찾아 거리의 전장을 가로지르는 한 여인의 이야기와, 전쟁의 포화를 피한 한 수도원을 찾아간 군목들이 받게 되는 가르침,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일군에게 포로로 잡힌 민병대와 연합군 병사들의 최후를 계속하여 그리고 있다.

전작 〈무방비도시〉가 독일 점령군에 대한 레지스탕스와 시민들의 저항이라는 상대적으로 단순한 극적 전개를 가진다면, 〈전화의 저편〉의 이야기들은 짧지만 명쾌하지 않은 결말들로 이루어져 있다. 아이러니보다는 모호함에 가까운 결말들은 전쟁의 현실을 고발하면서도 동시에 삶을 쉽게 오해받거나 편견에 갇혀 있고, 그 열정조차 때론 허무할 만큼 무상하기도 한 것처럼 보이게 한다. 여기서 이야기들은 단순히 현실을 보여주고 고발하기 보다는 그 이상의 것을 찾고자 하고 있다. 사실 이 두 편의 영화들은 모두 독일이 패망한 후에도 그 미래가 아직 결정되지 않고 있던 시기의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진 영화들이다. 그러나 우리

▲ 무방비도시

전화의 저편 ▶

는 역사 한가운데서 오히려 탈역사적이랄 수 있는, 현실을 초월코자 하는 문제의식의 발현을 이 영화들에서 찾을 수 있다. 그것은 현실이라기보다는 정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고, 진실이란 현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믿음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결국 이미 깨져버린 현실에 대해서 세계와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리라는 믿음이 전쟁을 겪은 이탈리아의 첫 번째 영화들을 만들어 낸 것은 아니었을까. 기계화된 전쟁과 대량학살을 경험한 세계가 더 이상 이전의 세계와는 같은 곳일 수는 없었을 것이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으로서의 영화 역시 달라지고 또 달라져야만 했을 때, 로셀리니 감독의 영화들이 그리고 네오리얼리즘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모던시네마가 다시 재생되고 있었던 것이다.

참고로 영화에 있어서 정신적인 것에 대한 희구, 혹은 우리네 문명에 대한 근심은 이후 로셀리니의 1948년작 〈독일영년〉에서 폐허가 된 독일의 한 소년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이어진다. 1945년부터 〈무방비도시〉로 시작하여 〈전화의 저편〉그리고 〈독일영년〉으로 이어지는 로셀리니 감독의 전후 영화들에서 그 시야의 확장을 직접 확인해보는 것도 가능할 것 이다.

아름다운 자연과의 만남, 또 다른 독립정신

– 한국문학평화포럼 부회장 시인 홍일선

어느덧 여름이 성큼 찾아온 6월, 여강과 흙이 키워낸 생명들 속에서 농민시인 홍일선 시인과 만났다. 인터뷰하는 내내 강아지 마냥 돌아다니며 꼬꼬 우는 닭과 풍경소리에 젖어 홍일선 시인의 나긋나긋한 경어체의 말투는 마치 노랫말처럼 들리었다.

한국문학평화포럼 부회장이자 1980년 창작과 비평으로 등단하여 '농토의 역사' , '한 알의 종자가 조국을 바꾸리라' , '흙의 경전' 등의 시집을 내며 농업에 대한 가치를 일깨우고 대자연을 예찬하는 시를 써온 그는 농업이란 지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성스러운 상업이라고 말한다. "모든 동물과 식물이 교감을 이루면서 대자연의 변함없는 순환에 가장 가깝게 닿아 있는 것이 농업이 아닌가요? 어머니인 땅을 잘 모셔야죠."

기후 온난화, 한반도 대운하 건설, 탄소배출권, 유전자변형 옥수수 등 쉴 새 없이 터지는 환경문제 때문인지 환경에 대한 세간의 관심은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겉 딱지만 있을 뿐 알맹이는 없는 말 들 뿐이다. 홍일선 시인은 우리에게 인간의 과학기술의 진보를 내세우기 전에 땅과 강, 생명을 먼저 사랑하라고 전한다.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자연을 보전하는 첫 걸음이자 핵심이다.

◈ 학생편집위원

인솔지
건국대 동물생명공학과

조수정
서울산업대 환경공학과

홍용희
서울시립대 국사학과

현재 그는 '대운하 백지화를 위한 문화예술인의 공동연대' 라는 문학, 미술, 음악, 사진, 서예, 춤, 영화, 연극, 마당극 등 13개 단체가 결합된 연대를 통해서 시집을 펴는 등 땅 뿐만 아니라 강에 대한 애정을 보여준다. 사실 '대운하 백지화를 위한 문화 예술인의 공동연대' 라는 이름 전에 '생명의 어머니이신 강을 모시기 위한 문화예술인 공동연대' 라는 이름을 썼었다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강을 어머니처럼 여긴다. "모든 강의 꿈이 바다로 가려고 하는 것만 아니에요. 작은 논으로 가서 논의 아름다운 젖 물이 되기도 하고, 감자 꽃을 피우기 위한 물이 되시기도 하고, 전 물에게 존칭을 쓰고 싶어요. 물님. 강님이야 말로 그냥 우리가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도 천년이 있고 오천년 있었던 그냥 강 아니에요?" 그에게 강은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는, 그리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 시간에서 조차도 이미 우리 곁에 있었던 어머니인 것이다.

그가 경기도 화성에서 보낸 순박하고도 아름다운 유년기는 그를 농민시인으로 만들기 충분했다. "학교 다녀와서 논 앞에서 새를 쫓으며 공부를 하기도 했어요. 어느 날 형님들을 공부시키시느라 그 논을 판 거예요. 전 모르고 매일같이 논 앞에서 가서 논을 지키며 공부를 했죠. 그러다 며칠 뒤에야 땅이 팔린걸 알게 된 거죠. 이 논이 우리에게 얼마나 고마움을 줬는데 팔았을까 하는 맘에 꼭 이 논을 찾

겠다고 생각하게 된 거 같아요. 결국 그 땅은 커서도 못 찾았죠. 그래도 어려서 막연하지만 맹세나 다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는 땅에 대한 그리움, 사무침을 글로 옮기면서 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고 농민시인이 된 것이다.

그런 그는 우리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 "곡식은 사람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해요. 하물며 자연도 다 듣는 강의 분노한 저 소리가 안 들리나요? 현대인은 기술, 문화, 진보라는 이름아래 우리가 불러주지 않아도 수 천 년 그 자리에 있어주었던 강의 소중함을 잊고 있어요. 사람들이 강의 목소리를 들어주었으면 좋겠어요." 땅은, 강은, 그리고 자연은 우리에게 무엇도 바라지 않는다. 그저 있던 자리에 그냥 그렇게 흘러가게 해주기만을 바라는 것이다.

그에게 독립정신이란 어떤 의미를 가질까?

"어떤 계기만 되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내면생활에는 극복하지 못한 , 청산하지 못한 시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난 우리 역사를 옳게 봤을 때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의 미래도 전망하고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는 우리에게 옳은 역사를 배우고, 배운 역사를 실천하는 것. 그것이 독립정신이라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7월 11일에 떠날 제 5기 독립정신답사단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물었다. "중국이라면 단재 신채호 선생님도 동사강목이라는 책을 가지고 떠나잖아요.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백범일지를 가슴에 품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백범일지가 임시정부의 아픈 역사가 고스란히 담고 있죠. 경찰에 잡혀서 모진 고문을 당할 때 백범께서는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저렇게 날 취조하는 일본 형사들은 나라에 충성을 하기위해 열심히 고문을 하는데 나는 그들만큼 애국을 했는가.' 하고요. 고문을 당할 때마다 애국에 대한 생각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한 사무침이 나에게는 있었는가, 그런 정신들을 배우기 위해 백범일지를 가슴에 품고 갔으면 합니다. 백범선생이 가고자 했던 나라들을 읽다보면 그 사람들 하고도 닿지 않을까 싶어요."

인터뷰가 끝나고 그의 집을 구석구석 돌아다녀 보았다. 산 아래 황토로 지은

▲ 홍일선 시인

▲ 대운하반대 문화예술인 공동연대 출범 기자회견장에서

집에는 닭과 병아리가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오리들은 뒤뚱뒤뚱 거리며 걸어다니고 있었다. 집 앞 마당에는 호밀이 누렇게 익어갔고 논에는 벼들과 우렁이, 개구리, 올챙이들이 사이좋게 지내고 있었다. 논두렁이의 뱀은 이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자연의 일부분을 보면서 어딘가 편안함이 몰려오는 듯하였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는 여강을 둘러보았다. 졸졸졸 흐르는 강소리와 시원한 강바람, 깊게 우거진 수풀, 둥그런 자갈과 모래들을 보며 여강의 아름다움을 저절로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이곳저곳 대운하를 위한 표식을 보면서 우리나라는 선진국들이 시행하는 정책들을 그대로 시행하지만, 이미 개발했던 자연을 이전 그대로의 자연으로 복귀시키는 선진국들에 반하여 자연을 경제발전이라는 이름 아래에 우리의 강들을 개발하려는 모습이 안타깝게 느껴졌다. 위정자들은 진정으로 강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

국치 백년 기억해야 하는 이유

김효순
한겨레 대기자

봄비가 심술궂게 뿌리던 지난 25일 오후 서울 향린교회에서 '진실과 미래, 국치 백년 사업 공동추진위원회' 창립대회가 열렸다. 일제의 조선 강점 백년이 되는 2010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를 놓고 학술 · 시민단체 수십 곳의 실무 주역들이 몇 달 동안 지속적인 토론을 거친 끝에 출범시킨 것이다. 행사장에는 김자동 임시정부기념사업회 회장, 민속학자 심우성, 사학자 이이화, 박재승 전 변협 회장 등 원로들과 고령의 피해 당사자들이 나왔다. 정부 수립 이후 친일 경찰을 쫓아내려다 모함을 받아 처형된 최능진의 자제인 최만립 전 대한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의 모습도 보였다.

아쉽게도 이 행사는 극히 일부 인터넷 언론을 제외하면 보도되지 않았다. 진정한 친일 청산 요구는 결코 고장난 레코드의 되풀이 재생이 아니다. 얼마 전 국방부가 군 원로인 백선엽 장군을 '명예원수'로 추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발표한 대목에서 나는 본말이 뒤바뀐 가치 체계의 끈질긴 생명력을 절감한다.

백 장군은 국내보다 국외에서 평가가 높은 군인이다. 영어와 일어판으로 여러 권의 저서가 나와 있다. 창군에 기여한 군인 중에 그만큼 화려한 경력을 가진 인사를 찾기 힘들다. 그가 회고록에서 언급한 일제 때의 군 경력은 아주 간략한 편이다. 봉천(현재의 선양)의 만주군관학교를 마치고 1942년 봄 임관해 자무스 부대에서 1년간 복무한 후 간도특설대의 한인부대로 전속됐다. 3년을 근무하다가 해방을 맞았으며 그동안 열하성과 북경 부근에서 팔로군과 전투를 치렀다고 했다.

"우리가 진지하게 토벌했기 때문에 한국의 독립이 늦어진 것도 아닐 것이고,
우리가 역으로 게릴라가 되어 싸웠다고 해도
독립이 빨라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래도 동포에게 총을 겨눈 것은 사실이고
비판받아도 할 수 없다"는 대목이 그렇다.

간도특설대의 성격에 대한 좀더 상세한 언급은 국내에서 출판되지 않은 〈대게릴라전, 미국은 왜 졌는가〉라는 책에서 볼 수 있다. 하라쇼보에서 1993년에 낸 이 책에는 '간도특설대의 비밀'이란 장이 있다. 간도특설대는 1938년 12월 종래의 국경감시대를 해체하고 하사관을 기간요원으로 해 간도성 연길현 명월구에 편성됐다. 부대장과 중대장 일부가 일본인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한국인이었다.

백 장군이 이 부대에 배속된 것은 1943년 2월이다. 그의 표현을 빌리면 예로부터 마적 비적이 창궐하던 지역에서 '무장 유민'들이 일본 세력의 진출에 저항을 했고, 그가 부임한 무렵에는 잇따른 토벌에 밀린 게릴라들이 소련령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활동이 수그러들었다. 간도특설대의 엄정한 군기는 일본군 지휘부에서도 정평이 나 있었다. 사격 · 총검 · 검도 등의 경연대회에서 항상 우승할 정도였으니 게릴라 소탕전에서 큰 전과를 올린 것은 당연했다.

당시 상황을 기술하는 그의 마음에 갈등이 없을 리가 없었다. 그는 "우리들이 쫓아다닌 게릴라 가운데 많은 조선인들이 섞여 있었다"며 "주의 주장의 차이가 있다고 해도, 한국인이 독립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는 한국인을 토벌한 것이기 때문에 오랑캐로 오랑캐를 제압하려는 일본의 책략에 그대로 끼인 모양이 됐다"고 인정했다. 한편으로 자기변명도 잊지 않았다. "우리가 진지하게 토벌했기 때문에 한국의 독립이 늦어진 것도 아닐 것이고, 우리가 역으로 게릴라가 되어 싸웠다고 해도 독립이 빨라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래도 동포에게 총을 겨눈 것은 사실이고 비판받아도 할 수 없다"는 대목이 그렇다.

차창조 광복회 사무총장은 창립대회에서 "나라가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엉망이 됐다"고 비분을 토로했다. 우리가 그 시절을 똑똑히 기억하지 않으면 국치가 되풀이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 이 기사는 한겨레 4월 28일자에 실린 내용입니다.

백범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III)

학생편집위원 정승임 홍요희

조영빈
홍익대 국어국문학과

조정의
이화여대 수학교육과

6월 26일이다. 선생께서 안두희의 저격으로 서거하신지 꼭 60년이 되는 날이다.

"절대다수의 애국동포들과 함께 조국의 통일과 완전 자주독립을 실현하기 위하여만 계속 분투하겠다."

그러나 선생은 끝내 통일된 조국을 보지 못했다. 선생의 자주 독립에 대한 노력을 단독정부수립의 방해물로 생각한 일부 세력 때문이었다.

그러고 나서 60년이 흘렀다. 조국은 여전히 반으로 갈려 있고, 최근에는 남과 북의 반목이 더해지고 있다. 남과 북의 화합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이 사단이 났고, 북한은 2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유엔과 미국 등 국제사회가 일제히 북한의 행동을 비난했다. 북한도 여기에 연일 강경한 성명을 발표하며 물러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우리의 입장은 무엇일까? 이상하다. 북한 핵문제에 가장 민감해야 할 우리들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

선생을 뵙기 위해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백범기념관을 찾았다. 장마철을 앞둔 무더운 날씨였지만 교복을 입은 많은 학생들이 눈에 띄었다. 가족 단위로 온 방문객도 적지 않았다. 선생은 자신이 이름이 걸린 곳이라 쑥스러우셨던지 처음엔 사양하셨다. 하지만 백범 선생님과 백범기념관을 둘러볼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부탁을 거듭하자 마지못해 허락하셨다.

벌써 네 번째 만남이지만, 갈수록 악화되는 한반도 문제에 대해 여쭈자

뾰족한 수는 없지. 남북관계에 애초부터
정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해법은 많지 않았네.
다만 서로를 믿고, 조금씩 마음을 터가는 완만한 방법이 있다네.
시간도 걸리고, 눈에 잘 보이진 않지만 분명 효과가 있는 길일세.
햇볕정책이 이것이었고, 개성공단이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지.

니 마음이 편치 않다. 이에 답변하실 선생의 마음은 더 하리라.

"북한이 2차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 까요" 환하던 선생의 얼굴 속에 근심이 묻어난다.

"핵실험은 분명 좋지 않은 선택일세.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들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지. 자신들의 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한 술책일 뿐이지. 최근 한반도 문제에서 우리의 목소리가 약한 것 역시 우리가 그동안 북한 문제에서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네. 북한이 도발적인 행동을 하기까지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하는 물음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선생은 외려 내게 다시 질문을 던졌다.

"분명 햇볕정책의 기조가 흐려지며, 남북관계가 경색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일까 생각해봐도 뾰족한 수는 생각나질 않네요. 결국 미국이나 중국 같은 강대국들이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돌아온 선생의 대답은 뜻밖이었다.

"자네 말대로 뾰족한 수는 없네."

무슨 말씀이신 걸까. 나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 마침 선생께서 걸음을 멈췄다.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흐뭇한 미소로 잠깐 바라보고, 말을 이어 나갔다.

"뾰족한 수는 없지. 남북관계에 애초부터 정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해법은 많지 않았네. 다만 서로를 믿고, 조금씩 마음을 터가는 완만한 방법이 있

다네. 시간도 걸리고, 눈에 잘 보이진 않지만 분명 효과가 있는 길일세. 햇볕정책이 이것이었고, 개성공단이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지."

그랬었다. 분명 우리는 최근 10여 년 간 가까워지고 있었다. 두 번의 정상회담이 있었고, 금강산 유람이 가능했다. 개성공단은 남북 경제 통합의 신호탄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북한이 어째서 개성공단을 허락했겠는가. 다름 아니라 우리에 대한 믿음이었다. 우리도 그들을 믿었다. 하지만 최근 1년간 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국제여론도 최악이다. 유엔은 강경한 입장의 성명을 발표했고, 미국 역시 오바마 임기 초반 보였던 유화적인 모습을 버리고, 북한의 도발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대한 문제에서도 선생은 믿음을 강조했다.

"남과 북은 다른 국가들과는 다른 관계에 있다네. 타국과는 다른 우리가 취해야 할 입장은 따로 있지. 다른 나라들이 보여줄 수 없는 믿음이라네. 현 정부가 대북 정책으로 내걸었던 '비핵 개방 3000'은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낼 수 있었던 정책이야. 단순한 경제적 원조로 북한의 믿음을 끌어 낼 순 없는 노릇이라네. 대화하려고 하는 꾸준한 노력도 없이 갑자기 경제적 이득을 줄 테니,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릴 수 있어.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은 믿음이네. 그들 역시 그들 나름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야 하는 것이고."

"그 믿음은 무엇으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서로에 대한 비방이 아닌 대화겠지. 특히 우리의 노력이 중요하다네. 타국의 역할을 폄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네. 주변 국가들은 그들 나름의 논리가 있네. 모두 자국의 안보를 생가할 것이고, 미국과 중국의 경우는 서로를 견제하고자 하는 수단으로 북한 문제를 이용할 가능성도 있네. 이들의 입장은 이들의 입장이지 우리의 입장은 아닐세.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견지해야 할 태도가 있겠지. 그 시작이 바로 양국의

"눈 덮힌 광야를 지날 때에는 함부로 걷지 말라.
오늘 나의 발자국은 마침내 뒷사람들의 길이 되리니 …."
지금 북한과 반복하는 상황이라고 해서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관계는 악화 될수록 회복하기 힘들다.
지금 잘 내놓은 길이 훗날 통일로 가는 초입이 될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대화 말고는 무엇이 있겠는가."

선생의 말씀이 옳다. 미국의 논리는 미국의 논리이다. 일본의 논리는 일본의 논리이다. 우리는 우리대로의 입장이 있어야 한다. 남북관계에서 통일이 궁극적 목표라면 그 시작은 대화다. 너무나 간명한 사실이었다. 이런저런 사건들이 잇달아 커지며 잠시 잊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북한이 핵실험을 한 것은 분명 잘못한 일이다. 그러나 그들이 적대적으로 나온다고 해서 우리까지 그래선 안 된다. 서로에 대한 믿음을 다시금 확인해야 할 때다. 그러기 위해 대화가 필요한 것이다.

문득 선생이 남긴 글귀가 떠올랐다.

"눈 덮힌 광야를 지날 때에는 함부로 걷지 말라. 오늘 나의 발자국은 마침내 뒷사람들의 길이 되리니 …."

지금 북한과 반복하는 상황이라고 해서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관계는 악화될수록 회복하기 힘들다. 지금 잘 내놓은 길이 훗날 통일로 가는 초입이 될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떠나신 지 60해가 되는 날, 선생의 말씀들이 여전히 큰 울림을 주는 듯 했다.

금융노조, 독립유공자에 성금

금융노조가 본회를 통해 독립유공자에게 성금을 전달했다.

지난 6월 17일 금융노조 이강본 대외협력본부장이 본회를 방문해 독립유공자 후손 5명에 각각 50만원씩 250만원을 전달했다. 이 본부장은 "과거 임시정부를 통해 독립운동을 한 선대의 업적을 기리기를 바란다"고 성금의 의미를 밝혔다. 이에 독립운동가 윤기섭 선생의 딸 경자(67)씨는 "요즘 젊은 세대들은 대한민국이 누구의 노력으로 세워진 것인지 잘 모르고 있다"며 "금융노조가 이를 알아준 데 감사하다"고 밝혔다.

〈조영빈 | 학생 편집위원〉

선운사에서 열린 독립정신 산악회

봄의 정기가 만연한 5월, 독립정신 산악회(회장 주세영)가 전북 고창에 자리한 선운사를 찾았다.

지난 5월 16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이번 산행에는 이항증 선생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첫날 선운사 산행에 나섰으며, 다음 날 일광 정시해 선생 기념관과 고창 읍성을 방문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다음 독립정신 산악회는 6월 27일 북악산에서 열릴 예정이다.

〈조영빈 | 학생 편집위원〉

제5기 독립정신 답사단 사전 워크숍 열려

오는 7월 출정을 앞 둔 제5기 독립정신 답사단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지난 6월 29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사전 워크숍은 서울 대방동 여성가족재단에서 학생 답사단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들은 이틀 동안 김학민 본회 이사의 강의를 듣고 독립군가를 배우는 등 답사에 필요한 정신 교육을 받았다.

제5기 독립정신 답사단은 오는 7월 11일 중국 상해에서 출정식을 갖고, 임시정부의 본거지를 따라 8박 9일간 함께 할 예정이다.

〈조영빈 | 학생 편집위원〉

◈ 만평

제대로 본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주독립과 통합 운동의 역사

임시정부는 거족적인 3 · 1운동으로 표출된 국민의 뜻을 모아 세워졌다. 오늘날의 국회라고 할 수 있는 임시의정원은 대한민국 임시헌법을 공포하였고, 이로써 군주제를 버리고 헌법과 의회에 바탕을 둔 민주공화정 정부가 우리 역사에서 최초로 들어선 것이다. 처음에는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 상해 임시정부, 한성 임시정부가 각각 세워졌으나 이는 곧 상해 임시정부로 통합되었다. 임시정부는 '연통제'를 실시하여 멀리 떨어진 국민에게 정부의 존재를 알렸고, 김가진 등 유력인사의 탈출과 시위운동 · 군자금 모금 등의 활동을 펼쳤다.

약 27년 동안 끊이지 않았던 임시정부의 독립투쟁은 결국 한국의 독립을 보장한다는 '카이로 선언'을 이끌어냈다. 이는 임시정부가 거둔 대표적인 성과 가운데 하나이며, 인도의 지도자 네루가 '아시아 식민지 국가 가운데 열강에 독립을 보장받은 나라는 오직 한국뿐'이라며 부러워했던 이유이다. 그리고 임시정부의 약 27년간 항일투쟁은 세계 약소민족 독립운동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벌인 것으로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자주정신을 세계에 알렸다.

이 책은 한 신문(조선일보)에 9명의 필자들이 분담 집필했던 원고를 바탕으로, 보완함으로써 그 뒤에 불거진 건국절 논란을 잠재우고, 참된 임시정부의 역사를 국민들에게 좀더 쉽고 정확하게 알리고자 노력하였다. 임시정부를 이끈 여러 지도자와 광복군, 상해 시민들의 사진과 수차례 자리를 옮겨야 했던 임시정부 청사 사진과 관련 지도, 당시의 신문기사 등은 임시정부를 만나는 데 생동감을 더할 것이다.

◈ **저자 소개** (가나다 순)
고정휴 (포항공과대학교 인문사회학부 교수)
반병률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학과 교수)
이현주 (국가보훈처 연구관)
최기영 (서강대학교 사학과 교수)
한시준 (단국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김희곤 (안동대학교 사학과 교수)
순커즈(孫科志) (중국 복단대학교 교수)
장석흥 (국민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한상도 (건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 후원해 주세요 -

본회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자주 · 독립정신을 계승 · 발전시킴으로써, 민족정기와 독립사상, 평화통일과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는데 기여할 목적으로 창립하였습니다. 본 회의 설립목적에 뜻을 같이하는 분은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 회비납부안내 ◈

본회 활동을 위해 회원 여러분의 정기적인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회비납부는 CMS 자동납부와 은행이체 방법이 있습니다.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CMS 자동납부신청시 송금수수료 없이 처리됩니다.)

※ 회비납부 계좌번호 (예금주 :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국민은행 813001-04-010309
우리은행 1005-700-941931
신한은행 304-01-159862

※ 기념관건립 후원금 계좌번호
(예금주 :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국민은행 813001-04-015151

-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3,4월회비납부자 명단 ◈

회원명	5월	6월	회원명	5월	6월	회원명	5월	6월	회원명	5월	6월
(사)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20,000	문재선		20,000	이성배	10,000	10,000	조인형	10,000	10,000
공성진	30,000	30,000	민향선	10,000	10,000	이신재	30,000	30,000	조정훈	30,000	30,000
곽태원	30,000	30,000	박두곤	10,000	10,000	이영국	20,000	10,000	조회환	10,000	10,000
권순갑		20,000	박원표	50,000	50,000	이영춘	30,000	30,000	주세영	30,000	30,000
김광림	30,000	30,000	박은봉	30,000	30,000	이영후	30,000	30,000	주철기	30,000	30,000
김광재	5,000	5,000	박의란	30,000	30,000	이용규	10,000	10,000	채의진	10,000	10,000
김동완	10,000	10,000	박정근		30,000	이원혁	100,000	100,000	최인국	10,000	10,000
김동현		10,000	박형순	10,000	10,000	이응국	5,000	5,000	최정식	10,000	10,000
김보성	10,000	10,000	백낙청	10,000	10,000	이일선	30,000	30,000	허석현	5,000	5,000
김선군	10,000	10,000	빙인섭	30,000	30,000	이재선	5,000	5,000	홍순권	10,000	10,000
김숙정	50,000	50,000	서홍관	30,000	30,000	이정재	100,000		황용만	5,000	5,000
김영림	30,000	30,000	송재웅	30,000	30,000	이종락	30,000	30,000			
김원규	10,000	10,000	신영연	10,000	10,000	이창복	30,000	30,000			
김원유	50,000	50,000	신준수	20,000	20,000	이학효	5,000	50,000			
김 위		20,000	심재권	30,000	30,000	이항증	30,000	30,000			
김위현	50,000	50,000	안영찬	5,000	5,000	이호헌	20,000	20,000			
김자동	100,000	100,000	엄근학	10,000	10,000	이화순	30,000	30,000			
김재철	100,000	100,000	엄기남	50,000	50,000	인순창	30,000	30,000			
김정육	50,000	50,000	오승숙	10,000	10,000	장은기	20,000	20,000			
김중숙	10,000	10,000	오은주	20,000	20,000	장필순	10,000	10,000			
김진경	5,000	5,000	오정수	20,000	20,000	장 홍	20,000	20,000			
김진모	20,000	20,000	우상호	30,000	30,000	정동익	30,000	30,000			
김진영	10,000	10,000	윤경자	30,000	30,000	정만기	30,000	30,000			
김진현	30,000	30,000	윤한옥	10,000	10,000	정철승		30,000			
김충환	5,000	5,000	이규중	30,000	30,000	정환기	10,000	10,000			
김학근	10,000	10,000	이규호	30,000	30,000	조기식	10,000	10,000			
남만우	30,000	30,000	이병윤	10,000	10,000	조명숙	10,000	10,000			
노시선	30,000	30,000	이상준	200,000	200,000	조용준	30,000	30,000			
류시경	30,000	30,000	이석희	100,000	100,000	조용환		30,000			

◈ 2009년 특별회비

회원명	5월	6월
김선현	1,000,000	
정철승	800,000	
㈜오토	6,000,000	6,000,000

◈ 2009년 기념관 회비납부

회원명	5월	6월
정만기		700,000
채의진	10,000	10,000

항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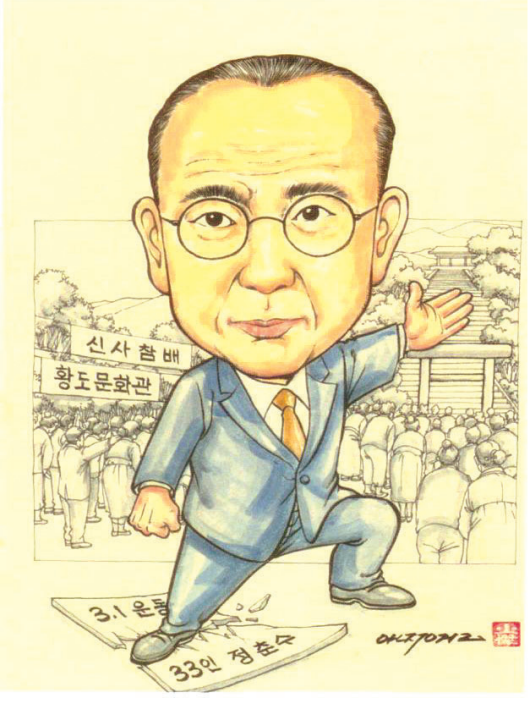
신석구 (1875~1950)

33세 때 기독교 감리교에 입교하였고 경성감리교회 협성신학교에서 3년간 수학하고 감리교 목사가 되었다.
1919년 2월 중순, 서울 수표교회 목사로 재임 중 삼일의거 계획을 전해 듣고 기독교측 민족대표로서 독립선언서에 서명하였다.
3월 1일 독립선언식에 참가한 뒤 일경에 체포되어 2년간 옥고를 치렀다.
1937년 감리교단이 신사참배 결정을 내렸지만 이에 불복하고 신사참배를 거부하여 다시 투옥되었다.
1945년에는 대동아전쟁 전승기원 예배와 일장기 게양 거부로 3개월간 구금되었다.
해방 후 북한에 체류하며 목회활동을 하다가 1947년 기독교 민회당 비밀결사사건으로 피검되어 1950년 10월 총살당하였다.

친일

정춘수 (1875~1951)

창씨명 : 노기야 하루슈(禾谷春洙)
삼일운동 때 원산 남촌동교회 목사로 재직하던 중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으로 독립선언서에 서명하고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36년 9월 6대 조선총독 우가키가 추진한 심전(心田)개발운동 강연회 연사로 참석하면서부터 친일로 돌아서서 감리교단의 황민화에 앞장섰다.
기독교조선 감리교단 회장 등 친일교단의 대표를 맡았고 임전보국단 평의원, 조선전시종교보국회 이사 등 시국단체의 요직을 지냈다.
1943년 10월에는 서울 상동교회에 '황도문학관'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황도문화관장에 취임한 뒤 신도들에게 황도문화를 설교하고, 그들을 남산의 조선신궁으로 끌고 가 참배케 하였다.
1996년 그의 친일행각이 드러나자 이에 분노한 청주지역 시민단체가 삼일공원에 서 있던 그의 동상을 끌어내렸다.



민족문제연구소 제공

SAMSUNG
Anycall
TALK PLAY LOVE
Today
일기장
기록장
2009.05.23
Anycall
스무살
하고 싶은게
너무 많은나이!
롤러 한 번 타볼까, 표지모델을 해볼까 아니면... 나만의 베스트셀러를 써 볼까?
아, 스무살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나이다
스무살의 다이어리
연아의 챕터
작고 귀여운 '마이 다이어리'
컴팩트 사이즈 & 메탈 패턴 커버
300만화소 카메라